국가도 나라도 두 동강

www.metroseoul.co.kr

'우리기술로 건질 수 있다'

외로워마소
물 밖도 차고 깜깜하오…

세월호 인양 '이렇게'

정부는 기술검토 결과 세월호 선체를 조류가 약하고 수중 시야 확보가 유리한 뒤 거치도 인근의 안전지대로 옮겨 인양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세월호를 인양하기 위해서는 선체의 가장 단단한 부분에 체인을 감고, 인양망에 와이어를 묶은 뒤 이를 해상크레인에 연결해 끌어올려야 한다. 그 과정에서 와이어에 걸리는 장력을 해상크레인이 감당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15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개한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TF' 자료에 따르면, 인양 시뮬레이션에서 장력의 최고치가 해상크레인이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인양 가능중량의 80%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선체 중량, 화물 중심, 파고, 조류 등의 조건을 입력해 시뮬레이션을 했을 때 선체가 해저면 위로 뜨는 순간 가장 큰 장력이 생겨 이후 일정하게 유지됐다. /송병형기자

국가는 없고 사회는 분열

선거에 악용된 '세월호 괴담'… 세월호 참사가 일베의 데뷔무대로 전락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다'는 말은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규정하는 하나의 명제가 됐다. 구조에 무능했던 국가는 생명의 무게에 둔감했고 심지어 무관심했다. 참사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명제에 막혀있다. '우리사회는 분열돼 있다'는 명제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온라인상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는 상식을 넘어선 글들이 범람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들을 향해 "돈을 노리고 있다"거나 "모든 게 정부 탓이 되는 유가족을 보고 (나만) 암 걸린다"는 글들이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걸려 있다. 희생자의 시신을 어묵에 비유하며 어묵을 먹는 사진을 올렸다가 법정에 선 일베 회원도 나왔지만 교훈은 없었다. 이후에도 세월호 어묵 게시물은 계속됐다.

지난해 9월에 있었던 일베 회원들의 '폭식 투쟁'은 비상식이 공개 장소에서 버젓이 활개를 쳤다는 점에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인증 놀이'에 머물던 일베 회원들이 오프라인에서 집단적으로 행동한 첫 번째 사례였다. 세월호 참사는 일베 회원들에게 공개활동의 기회로 여겨진 듯하다.

이들에게 길을 열어 준 것은 진영논리였다. 지난해 7·30재보선을 전후해 세간에는 세월호 특별법을 두고 '유가족 평생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는 괴담이 퍼다녔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심판론'을 내걸었던 야당은 재보선에서 참패했다. 이어 유가족들을 돕던 시민단체 상당수가 과거 광우병 파동 등에서 정부에 맞섰던 단체들이라는 이야기가 퍼졌다. 일베 회원들의 게시물에는 진영논리의 흔적이 가득하다.

진영논리는 현재도 진행형이다. 일베 게시판을 찾으면 유가족들을 '좌빨'로 표현하며 "세월호는 이 시간 이후 영원히 바다에 그대로 수장시켜야 한다"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송병형기자 bhsong@metroseoul.co.kr

1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참사 희생자 분향소에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시민들이 단원고 사망 학생들의 영정 앞에 놓고 간 꽃과 세월호 모형 등이 애처로움을 더하고 있다. /사진=손진영기자 son@

세월호 참사 1주기에도 해수부 '도덕적 해이' 여전

자원관 임직원 선발 과정 설립위원들이 '나눠먹기'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설립 예정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의 임직원 선발과정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됐다.

15일 김우남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에 따르면 자원관 설립위원회 위원들이 관장과 비상임이사 후보자로 참여한 채 임원 선발이 진행됐다. 후보자이자 심사관인 이들은 서로에게 최고점수를 준 사실이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를 부른 정부의 도덕적 해이가 참사 1주기를 맞는 지금까지도 여전하다는 방증이다.

자원관의 관장 선발은 해수부가 후보자 3명을 자원관 설립위에 추천하면 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2명을 선발한다. 이어 해수부에 선발된 2명을 보고하면 최종적으로 해수부 장관이 1명을 임명하게 된다. 비상임이사 선발은 설립위에서 자체적으로 후보자를 분야별로 모집하는 사항 외에는 관장 선발절차와 똑같다.

서로에게 최고점수를 준 설립위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심각했다. 당초 영원선임계획안 작성과정에서 문서작성자가 설립위원이 임원에 참여할 수 없는 요건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관장후보자인 건립추진기획단장 A씨가 참여제한 요건을 빼라고 지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현우기자

세월호 인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은 기술검토로 밝혀졌다. 유기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인양 결정에 관한 기자들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직도 갇힌 것 같아요”

세월호 생존 학생들 트라우마 치유는 어떻게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가 생존 학생들에게 준 트라우마는 어느 정도일까?

심리학자들과 정신과 의사들은 학생들이 수몰되는 끔찍한 장면을 속수무책 지켜본 충격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정부는 이제라도 원인을 규명하고 유가족에게 했던 약속을 지키고 재난대응 시스템을 정비해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정신적 외상 관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본지는 학생들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단원고, 대한트라우마협회 등 관련 기관의 담당자로부터 어떤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그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았다.

먼저 경기도 교육청의 이은미 부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이전에 없던 안산교육회복지원단(단장 서남철)이 이재정 교육감 취임후 지난해 7월1일 신설되었으며 한 달 후 치유회복지원단(단장 나경록 장학관)이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이 부대변인은 "세월호 생존 학생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 외에 형제·자매 등 친족에 대한 치료를 위해 안산지역에 있는 여러 학교에 지원을 했다"면서 "글로 배우는 안전교육이 아닌 체험위주의 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대상 학생이 1명이라도 있는 학교에 상담 교사와 교육 복지사를 상근시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 유가족·실종자 256가구 768명 비롯 타 지역에 심리지원

안산온마음센터(센터장 한창우)의 박혜란 상담사는 "유가족과 안산일반 시민의 트라우마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대한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포함해 총 35명의 전문인력이 근무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문적인 상담과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면서 "안산 지역의 유가족·실종자 256가구 768명을 비롯하여 타지역 생존자 등의 직간접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심리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산온마음센터는 개별상담 사례관리 뿐 아니라 여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피해자들의 심리회복을 돕고 있다. 요가 등 신체적인 이완을 위한 프로그램부터 미술·음악 등의 예술치료, 더 나아가 바이오피드백이나 EMDR과 같은 외상 전문 치료기법까지 중증도와 수요에 맞추어 폭넓게 진행하고 있다.

◆ 트라우마 켜면 시 일상생활에 큰 지장

1주기를 맞아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피해자 중 상당수는 사고 당시 상황이 자주 떠오르거나 꿈속에서 당시를 회상하는 재경험, 작은 일에도 깜짝 놀라는 과각성 등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점이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 트라우마를 떠올리는 것을 회피하게 되면서 결국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주기도 한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제 때 해소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면서 신체적인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식욕이 떨어져 체중이 감소하고 대표적인 스트레스성 질환인 소화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의 증상이 늘어났다. 알코올이나 담배에 의존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경향도 증가하고 있다.

◆ 치유 위해 사회적 지지 매우 중요

트라우마가 치유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일반 국민들도 일종의 집단적 트라우마를 받았다. 국민들은 세월호 소리를 듣기만 해도 당시의 고통이 떠오르기 때문에 때로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나 이러한 외면과 공감이 결여된 오해가 피해자들에게는 또다른 트라우마가 되고 있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1년 동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잊혀져 가는 것에 두렵다고 말한다. 이들이 우리의 이웃이자 국민으로 공감을 형성한 사회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가 필요하다. 건강한 사회라면 피해자들의 아픔을 직면하고 나눠가질 수 있는 집단적 용기가 필요하다.

/최학선기자 [illegible]

세월호 참사 1주년을 하루 앞둔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 모습.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뒤로 굳게 닫힌 청와대가 보인다. /사진= 손진영기자 son@

‘세월호 1주년’ 수원·안산서 오늘 추모행사 ‘봇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째 되는 날인 16일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각종 행사가 경기 수원과 안산 일대에서 열린다.

남경필 도지사 등 경기도청 소속 간부공무원들은 같은 날 오전 9시쯤 도청에 마련된 분향소를 찾아 헌화할 예정이다.

4·16 참사 1주년을 맞아 13일부터 17일까지를 추모기간으로 지정한 경기도교육청은 16일 오전 10시쯤 남부청사(수원)와 북부청사에서 추모 퍼포먼스, 추도사 낭독, 추모영상 상영 등을 한다.

추모식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전 직원, 각 교육장, 직속기관장 등이 참석한다.

오후 2시쯤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는 세월호 참사 1년 4·16 합동분향식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세월호 유족들이 정부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철폐하지 않을 경우 16일 합동분향식 일정을 전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어 향후 분향식 일정은 불투명하다.

단원고 생존학생을 비롯한 재학생들은 오후 7시쯤 학교 운동장에서 1주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행사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안산·수원지역 노동단체와 시민들도 추모 열기에 동참한다.

민주노총안산지부 조합원들은 오후 5시 30분쯤 인근 선부동 동명상가 삼거리에 모여 세월호 관련 영상을 상영하고 유가족들의 발언을 들을 계획이다.

세월호참사수원시민공동대응 등 수원지역 시민단체 회원들도 오후 7시쯤부터 수원역 광장에서 진상 규명을 위한 세월호 영상을 한시간 가량 상영한다.

/유선준기자 [illegible]

비온 뒤 만개한 벚꽃길 단비가 그친 15일 강원 춘천시 춘천댐 인근 도로에 벚꽃이 만개해 봄 정취를 느끼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패와의 전쟁' 읍참마속(泣斬馬謖) 배워라

김충훈의
재계 바로보기

성완종 블랙리스트가 한국사회를 뒤흔들며 국정 현안을 집어삼키고 있다. 국정 2인자인 이완구 국무총리가 파문의 중심에 서면서 그간 그가 진두지휘한 '부패와의 전쟁'이 자칫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작 본인이 금품수수 의혹의 당사자가 됐으니 '부패와의 전쟁'은 타격을 입게 됐다. 자원외교 비리, 대기업 비자금 수사 등에 국민들은 다소나마 기뻐했다. 썩어빠진 기업인과 정치인 등이 속속 거론되는데 국민은 술자리의 안주삼아 수사를 거론하며 부패척결에 대한 기대감에 차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하도 부정부패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다보니 사회에선 2015년 현재에도 소위 1980년대에 나돌던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과 기업인들은 '죄'를 짓고도 왜 하필 나만이라는 식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표적'이라는 빠져나갈 구멍 만들기다.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될 일이다.

정부는 이 총리와 관계없이 올해가 가기 전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부정부패를 저지른 자는 엄벌에 처해 다시는 정경유착이든 분식회계든 횡령이든 저지르면 엄벌에 처한다는 표본을 세워야 한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 장관이 국가통수권자에게 보고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그렇다보니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부패 척결이 탄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다. 대통령은 부패와의 전쟁에 대한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최근 중국의 리커창 국무원 총리는 "부패에 대한 관용성은 제로(0)다. 부패를 저지른 사람은 누구라도 심각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그 잘에 강하든 약하든 심각하게 벌을 내릴 것"이라고 부패척결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중국 정부가 80명의 성·기관급 관료를 낙마시키고 10여만명의 당원 간부를 척결하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한국정부도 이제는 읍참마속의 자세로 깨끗하고 투명한 한국을 젊은이들에게 물려줘야 할 때이다.

/산업부장

'Flower of April' Azalea Full Blossom

Spring has brought all kinds of living things back to its own colors. Especially in April, Azalea is popping out its leaves. Azalea is also called as "The compatriot flower". Although the North and the South has been divided into two, Azalea does not take sides. It blooms everywhere, from Baekdu Mountain to Hanla Mountain. That is how "Azalea Festival" can be opened at the same time throughout the country.

Some areas are hosting a festival entitled "Genuine Flower." Our ancestors called the royal azalea, "dog flower" and that is because it is not edible. Azalea is called the "genuine flower" because it is edible and fried azalea is called "fried flower." The azalea festival begins at Youngchi Mountain in Yeosu. This year, the festival was opened from the third to the fifth of this month.

Yeosu Youngchi Mountain Azalea Festival has twenty three years of history. A festival opened on the fifth in Milyang, Jongnam Mountain. Azalea Festival is held earlier depending on the blossoming period.

Wonmi Mountain Azalea festival was held on the eleventh and the twelfth in Kyunggido Buchon. And there will be Korea Mountain azalea festival from the eighteenth to the thirtieth in Incheon, Gangwha. This will be everyone's last opportunity to enjoy the beauty of Azalea.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환) 강사

'4월의 꽃' 진달래 만발

봄이 되자 온갖 생물이 약동하고 있다. 특히 4월 들어 진달래가 꽃망울 터뜨리고 있다. 진달래는 '겨레의 꽃'으로 불린다. 비록 남과 북으로 겨레는 양단됐지만 진달래는 남북을 가리지 않는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삼천리 방방곡곡에서 피어난다. 진달래 축제가 곳곳에서 동시에 열리는 이유다.

일부 지역에서는 '참꽃'이라는 이름으로 축제를 연다. 우리 조상들은 철쭉꽃을 '개꽃'이라 불렀다. 먹을 수 없어서다. 진달래는 먹을 수 있어 '참꽃'으로 불린다. 진달래로 부쳐 먹는 전은 '화전'으로 불린다.

진달래 축제는 여수 영취산에서 시작된다. 올해는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열렸다. 여수 영취산진달래축제는 23년의 역사를 자랑한다. 5일에는 밀양 종남산에서 축제가 개최됐다. 12일에는 창원 천주산에서 분홍의 축제세계가 펼쳐졌다.

진달래 축제는 개화시기를 따라 빠르게 북상한다. 경기도 부천에서 11일과 12일 원미산 진달래 축제가 열렸다. 이어 인천 강화에서 18일부터 30일까지 고려산 진달래 축제가 열린다. 진달래 축제를 즐길 마지막 기회다.

기사 멘트한 교수에게 압박하는 대기업의 힘

기자 수첩
이청월
<산업부 기자>

산업부에 와서 대기업의 막강한 힘을 실감하곤 한다.

최근 일이다.

대형 플랜트 사업을 영위하는 H사에서 근로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아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기사를 썼다.

기사 말미에는 전문가 의견으로 관련학과 교수의 멘트를 달았다.

내용은 업계 전반적인 차원에서 인전시설 확충과 안전교육 강화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민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멘트에 H사의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다.

기사가 나간 다음날 아침 교수로부터 전화가 왔다.

H사와 대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 관계인데 왜 그런 내용의 멘트가 나갔냐고 사측과 학교에서 압박이 들어온다는 것이었다.

해당 학과 학생들은 H사가 취업을 하는 일터고, 회사와 대학 양측에서 책임을 지라고 해 곤란해졌다는 내용이다.

데스크와 상의 후 연락하겠다고 한 뒤에도 교수는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기사 수정을 촉구했다.

전날 취재차 통화 당시 교수와는 안전에 대한 문제의식과 이에 대한 조언에 뜻을 같이 했었다.

또 배려 차원에서 H사는 멘트에 넣지 않고 업계 전반으로 가겠다는 데 동의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뜬 언론이라는 H사의 영향력에 두 사람은 서로 미안해졌다.

기사는 결국 데스크와 논의 끝에 취재원 보호 취지로 수정됐다. 교수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와서 대기업의 막강한 힘을 실감하곤 한다.

일반적인 지적이나 비판조차 허용치 않는 그들의 문화에 놀라곤 한다.

구멍가게 주인들이 무너져 대형마트 직원으로 들어가는 시대다.

청년들은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들어가기 위해 기를 쓰고 열심히 공부한다.

대형마트와 동네수퍼가 공존하는 사회, 제과기업과 수제빵집이 상생하는 나라를 바라는 건 대기업 입장에서는 생각의 차이에 걸리는 일일까.

인사

■ 메트로신문사
▲ 사회부장 최치선
■ 교육부
◇ 일반직 고위공무원 ▲대전시 부교육감 이준원
■ 서울시 SH공사
◇ 처장 승진 ▲ 경영지원처장 김광식 ▲ 총무팀장 이건혁 ▲ 강서주거복지센터장 홍둔준 ▲ 마곡사업처장 이광윤 ▲ 주거재생처장 강홍구 ▲ 건설사업처장 김영수 ▲ 건축설계팀장 김갑장 ▲ 노원주거복지센터장 이창용 ▲ 기전사업처장 최용식 ◇부장 승진 ▲총무팀 김선직 ▲ 공동체활성화팀장 이상석 ▲ 주택관리팀장 정경석 ▲ 임대공급팀장 민광찬 ▲ 매입공급팀장 김호영 ▲ 보상총괄팀장 이진근 ▲ 유에사업팀장 김영례 ▲ 강서주거복지센터장 정일헌 ▲ 건축사업팀장 김용선 ▲ 설계혁신팀장 조진락 ▲ 건축설계1팀장 안병기 ▲ 관악주거복지센터장 신재범 ▲ 기전설계팀장 김희진
■ 제주특별자치도
◇승진 <3급> ▲ 현지정책기획관 청렴감찰담당 강해숙 ▲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담당 김희순 ▲ 문화정책과 종교담당 여신은 ▲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담당 김창한 ▲ 에너지산업과 스마트그리드담당 김미영 ▲ 통상정책과 수출지원담당 고태범 ▲ 소통정책관 뉴미디어담당 김창석 ▲ 인권복지청권익 환경도시소지원단 환경지원담당 고생철 ▲ 공항인프라확충담당 조은종 ▲ 카지노감독기구 추진담당 원원도 ▲ FTA대응담당 강승관 ▲ 서울본부 세주시부소장 김봉묵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교육운영팀장 오미수 ▲ 수자원본부 수자원정책부 수자원정책관리과장 고철신 ▲ 수자원본부 상수도부 상수도생산관리과장 김석근 ▲ 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장 좌무정 ▲ 생활환경관리과 자원순환담당 고영남 ▲ 수자원본부 하수도부 서귀포하수운영과장 인태종 ▲노인장애인복지과 노인요양담당 현민보 ▲ 축산정책과 한돈산업담당 강일협 ▲ 수산정책과 어선어업담당 김재철 ▲ 안전총괄기획관 경보통제담당 이적훈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기획조정담당 신병수 ▲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인력육성담당 원재현
■ 세종시
◇ 4급 승진 ▲의회사무처 전문위원 김규범
■ 예금보험공사
◇ 임원 신규임용 ▲이사 임정열

부고

▲이젼순씨 별세, 토조대편 한국노동연구원 수석연구위원·권다지평장 후덕세정서기 주연희 씨 부군 국회의원 씨 오천상 김정덕(전 한국전력공사 부사장)씨 빙모상 = 15일 오전 8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발인 17일 오전 9시 ☎ 031-940-9370
▲김귀여씨 별세, 아연(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사무관)씨 조모장 = 14일, 광순한서병원장례식장 3분향실, 발인 16일 오전 11시30분 ☎ 053-570-7000
▲김종열씨 별세, 전희원(MRC 독립사업국 국장)씨 빙부장 = 14일 대구가톨릭병원 장례식장 특1실, 발인 16일 ☎ 053-650-4444

세월호 참사 1년… 가라앉은 한국경제

일부 지표 개선에도 소비심리는 '냉랭'

3월 CCSI 세월호 사고 직후보다 낮아 ‥ 수출입도 3개월 연속 감소

세월호 참사 발생 1년이 됐지만 아직도 국내 경기에는 그림자가 끼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소비와 서비스업생산 등 일부 지표에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참사 전 경기 회복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세월호 참사 직후 국내 경기는 곤두박질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분기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분기 0.4%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인 지난해 2분기 -0.4%로 바닥을 쳤다.

레저업 신용카드 승인액의 경우 세월호 참사 이후 전년 대비 3.6% 감소했고, 요식업 소비도 참사 이전 12.7% 증가에서 7.3%로 떨어졌다.

이 기간 서비스업 생산 증가율도 0.7%에서 0.1%로, 광공업생산은 -0.3%에서 -0.6%로 줄줄이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해 1분기 5.3%의 증가율을 보였던 건설투자도 2분기 들어 0.5%로 급락했다. 같은 기간 72만9000명이 늘었던 취업자수도 2분기에 46만4000명으로 감소했고, 2분기 실업률은 3.7%로 치솟았다.

경제성장률도 지난해 1분기 1.1%에서 참사 직후인 2분기 0.5%로 반토막났다.

국내 경기는 최근에야 조금씩 참사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2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2.8% 증가했고, 지난해 같은달과 비교하면 5.5% 늘었다. 소매판매의 경우 백화점, 대형마트 매출이 1년 전에 비해 감소했지만, 온라인쇼핑몰 매출이 급증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자동차 판매량도 늘었다. 국제유가가 평년대비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지난 1월 7.3%, 2월 12.1%, 3월 4.2% 늘어났다.

이 밖에 광공업생산도 전월 대비 2.6% 늘었고, 서비스업생산도 1.6% 늘어나는 등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피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의문이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3월 101을 기록해 세월호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해 5월 104보다도 낮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통합해 소비자들의 경제심리를 파악하는 종합지표다. 100을 기준으로 이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심리가 큰 것이다.

이 기간 가계수입전망CSI(99), 소비지출전망CSI(106)으로 전월 대비 각각 3포인트씩 떨어졌다.

수출과 수입도 올 들어 3개월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3월 수출은 469억8300만 달러를 기록해 지난해 같은 달보다 4.2% 감소했다. 이 기간 수입도 15.3% 줄어든 385억96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수출과 수입이 동반 하락하는 불황형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

이 밖에도 가계소득이 정체돼 있는 상황에서 노후, 주거, 일자리 불안 등으로 소비지출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1000조를 넘어선 가계부채도 국내 경기에 복병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지난 9일 성장률 전망치를 3.4%에서 3.1%로 낮췄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전망치를 14일 3.7%에서 3.3%로 하향조정했다. 노무라증권, BNP파리바 등 일부 외국계 민간 투자은행(IB)들은 2%대를 전망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현재 내수부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만 참사를 전후해 국내 경기가 크게 둔화된 것은 맞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장제일주의에서 벗어난 경제 체질개선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84041@metroseoul.co.kr

KB금융,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 후원 협약식 개최 KB금융그룹은 15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 선수 후원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KB금융은 이번 후원을 통해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018년까지 윤 선수의 국제대회 참가와 국내외 전지훈련 비용, 장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윤종규(오른쪽) KB금융 회장과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 선수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금융그룹 제공

우리銀, '자매결연 30주년' 軍 위문방문

"나눔문화 확산 협력"

우리은행은 지난 14일 경기도 김포에 위치한 해병2사단을 위문 방문해 우리함께 행복나눔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우리은행과 해병2사단은 자매결연 30주년을 맞아 소액기부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에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해병2사단 장병들은 우리은행 소액기부 상품인 '우리함께 행복나눔 통장·예적금 카드' 가입을 통해 복지소외계층에게 소정의 이자와 포인트를 기부하게 된다.

앞서 우리은행은 1985년 해병2사단과 자매결연을 맺은 이후 매년 연말연시와 4월 부대창설기념일을 맞아 위문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백아란기자 alive0202@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길(신문로2가)
TEL (02)721-9800 FAX (02)721-9561

회장·발행인	남금호
사장·편집인	김문혁
편집국장	강세준
광고문의	(02)721-9851~3
독자센터	(02)721-9851

2002년 5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서울라00208

신한금융 독주시대… 총자산 338조

작년 금융지주 순익 전년보다 2배 늘어

지난해 금융지주회사의 실적이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4년 금융지주회사 연결기준 경영실적'에 따르면 8개 금융지주사의 대손준비금 적립 후 지난해 연결 당기순이익은 6조1449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3조511억원) 대비 101.4% 증가한 수치다.

지주사별로는 신한지주의 당기순이익이 2조82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KB(1조2330억원), 하나(9126억원), 농협(6499억원) 순이었다. SC지주는 554억원의 명예퇴직비용 발생과 저금리로 인한 이자이익의 감소(1394억원) 등으로 은행지주사 중 유일하게 적자 전환했다.

업종별 이익 구성은 은행부문이 61.2%로 가장 높고, 이어서 비은행 24.0%, 금융투자 11.0%, 보험부문이 3.8%를 차지했다.

당기순익 증가에는 지주사들이 자회사를 신규 편입하면서 발생한 염가매수차익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염가매수차익이란 기업인수 시 인수 대상 회사의 순자산공정가치보다 인수가액이 낮은 경우 발생하는 이익을 말한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우리투자증권 등 우리지주 계열사를 인수해 3655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을 거둬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57.8% 증가했다.

BNK·JB지주도 각각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인수해 당기순익이 전년 대비 각각 68.0%, 251.9% 급증했다.

이 기간 은행지주사의 연결총자산은 전년 대비 404조3000억원(21.2%) 감소한 1499조9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우리·산은·씨티지주의 해산 때문이다. 전년 말 해산한 이들 지주사의 총자산은 590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를 제외한 8개 지주사의 총자산은 1년 전보다 186조2000억원(9.8%) 증가했다. 지주사별로는 신한지주(338조원)의 자산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농협(315조7000억원), 하나(315조5000억원), KB지주(308조4000억원) 등 순이었다. /김형석기자

"가정의 달 선물은 M포인트로"

현대카드, 최대 50% 결제

현대카드는 가정의 달을 맞아 쇼핑업종에서 M포인트 혜택을 주는 '50% M포인트 스페셜-쇼핑'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M포인트는 카드 사용 시 사용액의 0.5~2.0%가 적립되는 포인트로 고객은 내달 6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소셜커머스, 대형할인점에서 결제 금액의 50%를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온라인 쇼핑몰은 ▲GS SHOP(4/15~16) ▲신세계몰·이마트몰(4/17~19) ▲G마켓(4/20~21) ▲홈플러스 인터넷쇼핑몰(4/24~26) ▲현대Hmall(4/27~28) ▲옥션보바인(5/6) 순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티몬은 22일부터 양일간, 위메프는 29일부터 30일까지 혜택을 준다. 단 GS SHOP과 현대Hmall을 제외한 대상점에서는 결제 건당 3만 M포인트까지 사용 가능하다.

대형 할인점인 홈플러스는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7일간 전국 140개 매장에서 하루 한번 쇼핑금액의 절반을 3만 포인트까지 M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다.

한편 현대카드는 행사 참여 가맹점에서 최고 2만 M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주는 M포인트 추가 적립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다.

이벤트 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응모한 고객은 현대카드 엠카드로 대상 가맹점에서 10만원 이상 결제 시 5000 M포인트를 추가로 적립받을 수 있다. 이는 4개 가맹점까지 중복 적용된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쇼핑 지출이 늘어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고객들이 M포인트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가족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아란기자 ▪ ...

보험사 '절판' 효과 대박

대형손보사 실손 신규가입 168% 급증
과도한 계약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도

보험사가 또다시 절판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봤다. 특히 이달부터 도입키로한 8차 경험생명표와 새 예정이율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한 점을 노렸다. 하지만 이들 보험사의 절판마케팅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과도한 보험가입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손보사의 실손보험 신규가입은 총 46만4032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월(17만2921건)보다 168.3% 급증한 수치다.

이 밖에도 한화·롯데·MG손해보험 등 중견 손보사들도 전달 대비 2배가량 실손보험 가입자가 늘었다.

실손보험 판매건수가 가장 많았던 업체는 현대해상이다. 현대해상은 이 기간 10만8836건의 신규계약 실적을 올렸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지난 3월 실손보험을 중심으로 대부분의 보험 가입건수가 증가했다"며 "이를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실손보험 실적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손보사의 절판마케팅 영향이 큰 것으로 평가된다.

실제 모 손보사는 텔레마케팅과 설계사들을 활용해 실비·암·종신 정기보험료가 최대 20~30% 인상된다고 가입을 독촉했다.

하지만 보험사의 말과 달리 보험료 인상은 5~10%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암보험 등 보장성보험의 경우 새 경험생명표를 도입할 때 보험료 인상분은 5% 내외로 예상된다.

실손보험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인상되지만 실제 보험금이 감소되는 만큼 보험료도 저렴해진다.

이마저도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도입이 하반기로 미뤄졌다.

예정이율이 기존 3.5%에서 3.25%로 내려간 종신수령형 연금보험도 월 연금수령액이 기존보다 2~3% 감소하는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당국의 정책 변경과 새요율 도입때마다 절판마케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면서도 "실손보험의 경우 이미 중복가입자가 158만명에 이르는 등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계약에 따른 피해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형석기자 khs1434@metroseoul.co.kr

청소년 장애이해드라마 제작 지원

삼성화재, 7번째 참여

삼성화재는 청소년 장애이해드라마인 '윈드미라클의 바람돌배'를 제작·방영한다고 15일 밝혔다.

7년째를 맞은 이 드라마의 제작에는 교육부,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와 공동으로 참여했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홍보대사인 탤런트 정선경씨가 드라마에 출연했다. 교육부는 이 드라마를 전국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목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삼성화재는 제작비용을 지원했다. 또 제작총괄과 연출은 시네마디어파트에서 맡았다. 특히 삼성화재는 장애 학생과의 면담과 외부 위원과의 협의를 통해 드라마의 현실성과 참신성을 살렸다.

'윈드미라클의 바람돌배'는 바람이 불어야 초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어린이드라마 주인공 '지노'와 바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지체아 '소연'이가 시골학교에서 우연히 만나면서 아픔을 치유해가는 이야기로 꾸며졌다.

이 드라마는 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KBS 2TV에서 방영된다.

/김형석기자

개인연금 가입률 17.1%…성장세는 둔화

공적연금의 보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연금이 필요한 노령세대의 가입률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개발원이 보험사의 개인연금보험 가입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말 기준 우리나라 국민 중 개인연금 보험가입자는 876만명(17.1%)였다.

이번 조사는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일반연금·변액연금·연금저축보험 등을 분석한 결과다.

가입자수는 전년 대비 9.9% 증가했으며 전체 인구대비 가입률은 전년(15.7%) 대비 1.4%포인트 증가했다.

연령별 인구대비 가입률은 40대(29.6%), 30대(26.6%), 50대(25.0%) 순이었다. 하지만 60대는 12.2%, 70대는 2.1%에 불과했다.

60대의 경우 가입률 증가율이 2.5%포인트로 가장 높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였다.

경제활동 진입시기인 30대의 비중도 지난 3년간 9.4% 포인트 하락했다.

/김형석기자

라이프플래닛, 중랑노인복지관서 배식봉사 실시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보험은 지난 14일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노인 500여명을 대상으로 배식봉사를 실시했다. 라이프플래닛은 이번 봉사활동에서 노인들에게 고객이 기부한 짜장면을 제공했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직원이 서울시립 중랑노인종합복지관에서 배식봉사를 하고 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제공

'정보유출 여파' 작년 신용카드 발급 9.5%↓

5만원권 발행잔액, 28%↑

지난해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 등의 여파로 신용카드 신규 발급이 1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기간 5만원권 발행 잔액은 30% 가까이 늘며 고액권 선호도가 증가세를 보였다.

1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4년도 지급결제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의 신용카드 발급은 9232만장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의 1억202만장 보다 970만장(-9.5%) 감소한 수치다.

특히 신용카드 발급장수는 신용카드 발행모집 근절대책 시행과 휴면카드 정리·자동해지 제도 도입으로 2011년 1억2214만장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이용 건수와 금액 역시 각각 2427만건, 1조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8.6%, 2.0%의 증가율에 그쳤다.

반면 체크카드는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작년 체크카드 발급은 1억675만장으로 전년 대비 535만장(5.2%) 늘었다. 발급장수는 2013년 처음으로 신용카드(138만장)를 추월한 이후 지난해 격차를 1643만장으로 벌였다.

체크카드 이용 건수와 금액 또한 지난해 1209만건, 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각각 27.7%, 18.3%로 올라갔다.

한은 측은 "세제혜택 확대와 카드사의 영업 강화로 체크카드의 견조한 증가세가 이어졌다"며 "휴면카드 자동해지와 지난해 초 발생한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3사의 고객정보 유출 사고 영향으로 신용카드 발급은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액권 선호 현상에 힘입어 5만원권 발행 잔액은 크게 증가했다.

작년 말 전체 화폐발행 잔액은 전년 말 대비 18.3% 늘어난 74조8000억원으로 나왔다. 이 기간 5만원권은 27.8% 증가했다. 하지만 1만원권은 0.4% 느는 데 그쳤다.

또한 5만원권 사용이 늘면서 10만원권 자기앞수표의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3년 1130억원에서 2014년 940억원으로 16.7% 감소했다.

이밖에 스마트폰 보편화로 모바일뱅킹 이용도 급증했다.

2014년 말 기준 17개 국내은행 및 우체국에 등록된 인터넷·모바일뱅킹 고객은 각각 1억319만명, 6011만명으로 전년 대비 8.1%, 20.4%씩 늘었다.

/백아란기자

'소통은 자연스럽게'

카드사 "페북·맞춤형 정보로 2030 잡는다"

봄 나들이용 커플 아이템을 소개하고 가수의 꿈을 지원하며, 약 200년전 프랑스 귀족의 손에서 탄생한 자전거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려주는 곳.

쇼핑몰이나 연예기획사, 도서관의 정보가 아니다. 2030세대 마음을 잡기 위한 카드사들의 이색 소통 서비스 가운데 하나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드사에서는 SNS와 콘테스트 등의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젊은 층에 다가가고 있다. 이를 통해 회사 이미지를 개선하고 젊은 신규고객 유입까지 끌어 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기회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 페이스북·도서관 활용 "자연스러운 소통"

신한카드는 지난 13일 공식 운영 중인 페이스북의 전체 팬(좋아요를 누른 고객) 수가 5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업계에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한 것이다. 앞서 신한카드는 지난해 9월 전담조직인 SNS팀을 만드는 등 젊은 층과의 커뮤니케이션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실제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을 초 신년사를 통해 "미래 수익창출을 위해 잠재유망 시장인 2030세대와 지불결제시장의 판도 변화에서 확실한 경쟁우위를 확보하는데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신한카드는 전담 조직에 차장급 직원을 조직장으로 발탁하고 SNS운영 전문 인력을 충원했다. 아울러 작년 11월에는 사진 전용 SNS인 인스타그램에도 카드업권 최초로 진출했다.

특히 대학생들과 공동으로 SNS커뮤니케이션 방향을 연구하는 스터디 그룹 '신카랑'을 운영하고 있다. 20대 관점에서 컨텐츠 제작 등 운영노하우와 온라인 마케팅에 대한 방향도 잡고 있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적극적인 SNS 채널 활성화로 지난 2월초 대중교통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신한카드 B.Big(빅카드)을 출시하는 과정에서 페이스북 등 SNS채널을 중심으로 신상품 바이럴 마케팅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결과 본격적으로 영업하기도 전에 1000여명의 신규고객이 온라인 채널로 사전신청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 2030 아이디어 활용…참여 통한 바이럴 마케팅

현대카드는 여행 관련 전문 서적으로 가득 채워진 '트래블 라이브러리'와 디자인 철학을 담은 '디자인 라이브러리'를 운영하고 있다.

단순히 여행이나 상품을 소개하는것이 아니라 도서관 방문 자체만으로 고객을 여행과 일탈로 이끄는 셈이다. 특히 도서관 속 이야기는 현대카드의 페이스북을 통해 만화와 영상으로 전달되기도 한다.

이밖에 슈퍼콘서트와 컬쳐프로젝트 등 대형 문화공연 행사를 진행하며 발생한 에피소드와 비하인드 스토리도 SNS에서 소개하며 젊은 층의 눈길을 끌고 있다.

꿈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삼성카드의 '영랩 싱(Sing)스타 콘테스트'가 바로 그 주인공.

프로그램은 노래를 잘하는 팀을 뽑는 '가창분야'와 개개인의 끼를 펼칠 수 있는 '내맛대로 분야'로 나눠서 진행된다. 내달 4일까지 삼성카드 영랩 홈페이지로 응모하면 된다.

가창분야 대상 선발 1팀에게는 감성 보컬그룹 '어반자카파'와 듀엣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역량지원금 500만원을 제공한다.

이와함께 삼성카드는 지난해 3월 20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공간 '삼성카드 영랩'을 런칭하기도 했다.

또한 삼성카드 멘토와 20대들이 함께 마케팅 기획활동을 하며 기업에 필요한 업무 소양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영랩 마케터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대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즐길 수 있는 참여형 토크콘서트 '삼성카드 톡앤플레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삼성카드 영랩 가입 회원이 1년 여 만에 1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상진기자 sj will2@

코스피 최고치 찍을까

주요 증권사 전망치 2150~2250 제시

최근 코스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자 주요 증권사들이 코스피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대다수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저금리 환경, 기업실적 개선 등 우호적인 여건을 감안할 때 상승랠리를 지속할 것"이라며 "연내에 사상 최고치를 찍을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1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요 10개 증권사와 코스피 예상 등락범위를 집계한 결과, 코스피 상단 전망치로 2150~2250이 제시됐다.

특히 대신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교보증권 등 3곳은 코스피가 연내 최고 2250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 2012년 이후 이어져 온 박스권의 상단(2100)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2일에 기록한 역사적 고점(2228.96)보다도 20포인트 가량 높다.

교보증권은 "수년간 박스권 장세가 이어졌지만, 이번에는 일부 조정에 나타나도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수준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베스트투자증권은 "지난 1980년대의 성장을 견인한 것이 정보기술(IT)과 자동차였다면, 지금은 IT와 화장품을 보고 있다"고 판단했다.

한국투자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증권은 코스피 상단 전망치로 2200을 내놓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코스피가 1분기 내내 쉬지 않고 상승한 만큼 2분기 중 숨 고르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다만 연간으로 볼 때 코스피의 우상향 추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NH투자증권은 올해 코

증권은 2150을 각각 제시했다. 또 현대증권과 KDB대우증권은 최근 장세의 큰 변동으로 코스피 밴드 조정에 나섰다. KDB대우증권은 지난해 말에 내놓은 상단 전망치(2050)가 이미 코스피보다 낮아진 상태다. 현대증권도 코스피 전망치를 수정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8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이후 시중 자금이 증권시장으로 대거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에 따르면 기준금리를 내리기 직전인 지난해 7월 말부터 지난달말까지 8개월간 자산운용사 수신액과 증시 투자자예탁금 증가액이 총 54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증권시장으로의 자금 유입은 채권형 펀드와 머니마켓펀드(MMF)가 선도했다. 두 펀드에는 8개월간 14조2000억원, 21조6000억원이 유입돼 잔액 증가율이 각각 22.7%, 27.1%에 달했다.

유안타증권, '차이나는 유안타' 중국 자산증대 이벤트 실시 유안타증권이 오는 7월 21일까지 투자권유대행인을 대상으로 중국관련 상품 유치 시 자산 실적에 따라 여름 휴가비 등을 지원하는 '차이나는 유안타' 이벤트를 실시한다. 투자권유대행인이 유치한 중국관련 상품자산은 기본적으로 1000만원당 1점씩 포인트를 지급한다. 100점 달성 직마다 투자권유대행인에게 100만원 상당의 여름 상품권을 지원한다. 또 11점을 달성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휴가유용을 증정한다. /유안타증권 제공

증시 훈풍에 날개 단 '상장지수증권'

상장지수증권(ETN) 시장이 증시 활황에 탄력을 받아 몸집을 키우고 있다. 기준금리 1%에 투자자들이 중위험 중수익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자 증권사들은 앞 다퉈 ETN 상품을 내놓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상반기 중 20여개의 ETN 상장을 목표로 제시했다. 15일에도 원유선물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4개 ETN 상품이 상장했다. 신한금융투자의 신한 브렌트원유 선물 ETN(H), 신한 인버스 WTI원유 선물 ETN(H)과 NH투자증권의 'octo 스마트리밸런싱 ETN'과 'octo 롱숏 ETN' 등이다.

거래소에 따르면 ETN은 연초 이후 지난달 말까지 5.97%의 평균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같은 기간 국내주식형 ETF의 평균 수익률(5.63%)과 국내주식형펀드수익률(5.57%)을 웃도는 수치다. 하루평균거래대금도 지난해 11월 시장 개설 초 1억900만원에서 이달 들어 21억65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ETN은 다양한 시장 지수와 상품 가격에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한 파생결합증권이다. 중위험 중수익을 추구한다. 거래소에 상장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고 소액투자도 가능하다.

자산운용사가 기초자산을 직접 편입해 운용하는 ETF는 운용사의 운용능력에 따라 기초지수의 수익률과 상품 수익률 간 추적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반해 ETN은 증권사가 자기신용을 바탕으로 직접 발행과 상장을 진행하기 때문에 추적오차가 없어 기초지수의 수익률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증시활황, 높은 수익률로 단 6개월여 만에 효자상품으로 떠오른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증권사의 신용 상태와 ETN이 어떤 지수를 추종하는지 등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조언했다. /김보배기자 bobae@

재계 총수의 정치도전… 결국엔 '씁쓸'

고 정주영 현대그룹회장
YS에 사죄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
친박에 토사구팽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비리의혹에 자살

스스로 피 땀흘려 기업을 일군 오너도 비참했고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이끈 오너도 끝은 불행했다. 정치판에 뛰어든 기업오너의 정계 인생 마지막 모습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15일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이 사카린 밀수사건으로 혼신을 다해 세운 한국비료를 국가에 헌납하고 정치를 할 결심을 했는데 그때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이 말렸다고 한다"며 "정치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며 만류했다고 하는데 그건 잘 한 일"이라고 말했다.

'호암자전' 등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60년대 초 정계 투신을 결심했다. 기업인이 '부정축재자'로 낙인찍혀 정치적 희생양이 되는 현실에 환멸을 느낀 이 전 회장이 직접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홍 전 회장의 만류했고 1년여간의 고심 끝에 정치가 아닌 언론사업을 택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언론권력은 무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이 전 회장의 '재계 라이벌'이던 정주영 전 현대그룹 회장은 1992년 정치일선에 뛰어들었다. 정 전 회장은 김동길 당시 연세대 교수와 삼김(김영삼·김대중·김종필) 낚시론(청산론)에 동조, "평생 정치인들로부터 당하느니 내가 정치를 하면 저자세로 살 필요 없을 것"이라며 정치판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통일국민당을 창당하고 3월 총선에서 31석을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같은 해 12월 대선에 도전, 388만여표를 얻는데 그쳐 3위에 머물렀다.

시련은 빨리 찾아왔다. 김영삼 정부로부터 현대그룹과 계열사는 고강도 세무조사, 검찰의 선거법 위반 수사 등 고통에 시달렸다. 결국 정 전 회장은 1993년 3월 의원직을 사퇴하고 정계를 떠났지만 업무상횡령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1995년 8월 19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정 전 회장에게 "이제 딴 생각 말고 국민을 생각해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전념해 달라"고 충고했고 정 전 회장은 현재 정치에게 고개를 숙이며 현대그룹을 볼모로 정치판 데 대해 사죄했다.

김호연 전 빙그레 회장은 지난 2008년 18대 총선에 한나라당 후보로 도전 낙선한다. 그러나 2년 뒤 충남 천안을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돼 화려하게 정계에 입문한다. 백범 김구선생의 손녀사위인 김 전 회장은 '신사풍'으로 무난하게 정치를 했다는 평이다.

2012년 총선에서 40.02%를 득표하며 아쉽게 낙선했지만 서강대 동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캠프에 합류, 화려한 복귀를 꿈꿀 수 있게 됐다. 김 전 회장은 친박(친박근혜) 계로 분류되면서 여당 대선 선대위 종합상황실 부실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열풍 속에 재계인사인 그는 결국 친박 주류들에게 집중 견제를 당하면서 공직에 한번도 몸담지 못하고 지난해 3월 빙그레의 등기이사로 복귀 사실상 정계를 떠났다. 친박에게 토사구팽 당한 셈이다.

가난하게 태어나 신문배달, 식당 종업원 등으로 돈을 벌어 2003년 대우그룹 계열사였던 경남기업을 인수해 연 매출 2조 원대의 대기업으로 성장시킨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인생은 불운의 연속이었다.

성 전 회장은 2004년 치러진 17대 총선에서 자민련 비례대표 2번을 받았다. 그러나 자민련의 몰락으로 금배지를 달지 못한다.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공천을 받지 못했던 성 전 회장은 마침내 19대 총선에서 자유선진당 후보로 충남 서산·태안에 출마, 당선된다. 당 원내대표까지 맡았던 성 전 회장은 총선 전 지역 주민에게 무료 음악회를 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6월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된다. 이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비리 의혹 수사를 받던 지난 9일 전 정권 실세들의 로비 리스트만 남긴 채 자살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이들 기업오너들의 공통점은 사업가로 성공한 후 정치인으로 욕심 낸 경우"라며 "재계에선 중앙에 있었지만 정계에선 철저히 변방에 서 있었다"고 말했다.

/송병형기자 s.h@metroseoul.co.kr

삼성전자가 양산에 들어간 울트라슬림PC용 'M.2 NVMe SSD'와 500원 동전의 크기를 비교한 사진이다.

PC도 초고속 SSD 시대
삼성전자, 세계 최초 양산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울트라슬림PC에 탑재되는 'M.2' 규격의 'NVMe'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SSD) 양산에 들어갔다.

삼성전자는 이달부터 글로벌 정보통신(IT) 업체에 PC용 M.2 NVMe SSD(모델명 SM951 NVMe)를 공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M.2는 울트라슬림PC에 최적화된 초슬림 저장장치 규격을 말한다.

NVMe는 하드디스크드라이브(HDD)에 최적화된 기존의 SATA 규격 대신 SSD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개발된 초고속 데이터 전송 규격이다. 기존 SATA 인터페이스보다 6배 이상 빠르다.

M.2 NVMe SSD는 두께가 최대 3.73㎜(양면기준)에 불과하고 무게는 7g 미만으로 기존 2.5인치 규격 SSD의 10분의 1 수준이다. 500원짜리 동전 너비만 하다.

특히 512GB 모델은 삼성전자가 독자 개발한 컨트롤러를 탑재했다. 같은 M.2 규격의 기존 소비자용 SATA SSD보다도 4배 빠른 초당 2260MB의 연속읽기 속도를 낸다. 연속 쓰기 속도는 기존보다 3배 빠른 초당 1600MB로 업계 최고다.

/양성운기자 ysw@

檢, 남부발전 비리수사 속도… 사정칼날 윗선 향하나

기소범위 압축·감사원 사업 지적 → 고위층 벼랑끝 몰려

검찰이 최근 조직적으로 출장비 등을 유용한 혐의로 한국남부발전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등 비리 수사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사정 칼날이 윗선으로 향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데다 관련자 기소 범위가 점점 압축되면서 고위층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감사원이 수익성 하락에도 제주 해상풍력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지적까지 이어지면서 윗선의 목을 서서히 조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황전휘)는 최근 남부발전 관계자들을 소환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출장비 등을 허위하고 최근 7년간 출장비를 부풀려 억대의 회사 자금을 유용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남부발전에 대한 사정 칼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구지검은 올 초 납품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1500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남부발전 1급 장모(56)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이 남부발전의 일부 사업관리 부실을 지적하지 전방위적인 압박이 진행되면서 결국 윗선까지 조사가 확대될 분위기다.

남부발전은 2012년 6월 제주 대정 해상풍력 1단계 발전사업에 대한 지분 출자를 결정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수익률이 9.4%에서 기준수익률(7%) 이하인 2.8%로 하락했음에도 무리하게 신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비판했다.

사태는 역화 일로다. 최근 신규 대용량 척 원가 기자발전 설비 등의 사장진입으로 복합화력의 이용률이 저하됐지만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해 경영상 어려움까지 우려된다. 여기에 대대적인 납품비리로 3년 연속 꾸준히 수상했던 청렴도 조사 1위의 영예도 로비에서 받은게 아닌지 의심을 받을 정도다.

/박상길기자

LG전자, 보급형 스마트폰 'LG볼트' 내일 베일 벗는다

LG전자가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본 기능에 충실한 저가형 스마트폰 'LG 볼트'(사진)를 출시했다.

LG전자는 곡면(커브드) 디자인을 채택한 20만원대 보급형 스마트폰 'LG 볼트(Volt)'를 이동통신 3사를 통해 17일 국내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LG전자는 프리미엄급 스마트폰에 탑재해왔던 곡면디자인과 UX를 LG 볼트에 탑재했다. 이 외에도 셀카 촬영 시 스마트폰 화면을 향해 손바닥을 펼쳤다가 주먹을 쥐면 3초 후 자동으로 촬영되는 '제스처 샷',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 화면상단을 터치해 살짝 끌어내리면 시간·메시지수신·부재중전화 등 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글랜스 뷰' 등을 사용할 수 있다.

클라우드 기반 오피스 서비스 '폴라리스 오피스'가 탑재돼 2년 동안 10GB의 클라우드 저장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된다.

/김은경기자 eun21@

에티오피아 대통령, LGD 파주사업장 방문

친환경 신업인프라 관심

제7차 세계 물포럼 참석차 방한한 물라투 테쇼메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15일 LG디스플레이(대표 한상범) 파주사업장을 방문해 최첨단 디스플레이 생산라인과 수(水)처리 시설 등을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이 방한중에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산업현장 시찰을 희망해 이뤄졌다. 파주는 대표적 낙후지역이었으나 LG디스플레이 공장이 자리잡으면서 기업과 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한 경제도시의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다.

또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은 폐수처리 및 재활용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는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물라투 테쇼메 에티오피아 대통령이 직접 LG디스플레이 파주사업장을 방문, 기업과 지역발전상은 물론 친환경 산업인프라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또 이날 방문에는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함께 자리했다.

한편 LG는 글로벌 CSR활동의 일환으로 에티오피아와 깊은 인연을 이어오고 있다. 2012년부터 에티오피아 수도 인근의 낙후된 마을의

한상범 LG디스플레이 사장이 15일 파주사업장을 방문한 물라투 테쇼메 대통령에게 자사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소득증대를 위해 자립형 농촌 마을로 변모시켜주는 LG희망마을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또 현지 젊은이들의 직업역량 제고를 위해 직업훈련학교 'LG희망학교'를 설립하고 한국전 참전용사의 후손을 지원하는 장학사업도 3년째 펼쳐오고 있다.

/양성운기자 ysw@metroseoul.co.kr

'크레인+플로팅독' 세월호 인양 가능할까

대우조선해양 "진도로 언제든 달려갈 것"

세월호
길이 : 145m
폭 : 22m
무게 : 약 1만200t (추정)

	길이(m)	폭(m)	크레인 규모(t)
현대삼호중공업	335	70	10000
대우조선해양	438	23.5	3600
삼성중공업	420	70	8000

1년째 물에 잠겨있는 세월호 인양에 국내 중공업계의 플로팅독과 크레인을 활용한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15일 해양수산부 세월호 선체처리 기술검토 테스크포스(TF)팀에 따르면 세월호 인양 방법으로 해상크레인 사용방식과 플로팅독 사용방식을 조합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

세월호는 길이 145.6m, 폭 22m 규모다. 선체중량은 수중에서 부력으로 인해 8400t 수준이나 수면 위로 들어 올릴 경우 약 1만200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체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2대(1만t+8000t급)의 대형 크레인과 세월호보다 큰 플로팅독이 동시에 필요하다. 한국 기업의 경우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큰 해상 크레인은 현대삼호중공업이 보유한 1만t급 크레인 'HYUNDAI 1만'호다. 삼성중공업은 8000t급, 대우조선해양은 3600t급 해상크레인 2대를 운용중이다.

플로팅도크는 해상크레인이 선체를 들어올린 후 투입된다. 'U'자 모양의 플로팅독은 물 위에서 선박을 조립하는 데 쓰이는 장비로 부력을 이용해 선체를 물 위로 띄어올린다.

현재 인양에 가능한 가장 큰 플로팅독은 대우조선해양의 RD-5다. 길이 438m, 폭 23.5m다. 삼성중공업의 'G4독'은 길이 420m, 폭 70m다. 현대삼호중공업의 '뉴질랜지'는 길이 335m, 폭 70m 수준이다.

조선업계는 인양 과정에서 손실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당시도 해양크레인을 보냈다"며 "정부의 요청이 있다면 거절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국제입찰을 통해 인양업체들이 낸 기술제안서를 바탕으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다. 업체 선정에는 약 2개월, 선정된 업체가 인양 계획을 세우는 데는 약 3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소리기자 10sound@metroseoul.co.kr

전동수 삼성SDS 사장이 15일 서울 송파구 삼성SDS타워에서 열린 '창립30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삼성SDS 제공

"2020년까지 매출 20조 달성"

전동수 삼성SDS 사장 창립 30주년 비전 선포

"2020년까지 매출 20조원 달성,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 톱10 진입을 통해 일류 IT 서비스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

전동수 삼성SDS 사장은 15일 서울 잠실 퀘스트캠퍼스 사옥에서 창립 30주년 기념식 및 비전 선포식에서 이 같이 밝혔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삼성SDS가 인사이트 투 인스피레이션(Insight to Inspiration)이란 주제 아래 SMAC(Social Network Mobility Analytics Cloud)을 기반한 솔루션 사업으로 산업의 변혁기 시점에 새로운 기회를 잡겠다는 청사진도 내놓았다.

전 사장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논의해보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삼성SDS의 도전과제는 어떻게 새로운 고수의 엔진 과제를 확보하고 어떻게 글로벌화를 이룰 것이냐가 과제고 숙제"라며 시작했다.

1985년 5월 초기 자본금 2억원으로 설립된 삼성데이타시스템을 전신으로 하고 있는 삼성SDS는 1997년 현재 사명으로 바꾼 뒤 삼성그룹 계열사 물량을 발판으로 업계 1위의 시스템통합(SI) 업체로 성장했다.

2010년 조 삼성네트웍스와 2013년 말 삼성SNS(옛 서울통신기술)를 차례로 흡수합병하면서 현재의 규모를 갖췄고 작년 11월에는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며 단숨에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스피 10위권으로 발돋움했다.

삼성SDS가 '비전 2020'을 현실화하려면 현재의 매출 규모를 3배 가까이 끌어올려야 한다. 작년 매출은 7조8977억원, 영업이익은 5934억원이었다. 매출의 약 70%는 IT 서비스 분야에서, 30%는 물류 BPO(업무처리 아웃소싱) 분야에서 발생했다.

삼성SDS는 목표 달성을 위해 우선 기존 주력사업인 ITO(IT 아웃소싱) 분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ITO 사업 부문 매출을 7조원대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소셜네트워크, 모바일, 애널리틱스(분석기술), 클라우드를 아우르는 스맥(SMAC)을 기반으로 혁신한 ITO와 물류 BPO 사업 분야 매출을 최대 8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여기에 솔루션 기반의 미래사업에서 5조원의 매출을 거둘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문경기자

아시아나 또 대형사고… 안전불감증 여전

"고객 직접 만나 사죄할 것"

아시아나항공 162편(에어버스 A320) 여객기가 일본 히로시마 공항에 착륙하면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14일 발생했다. 2년전 샌프란시스코 아시아나 여객기 추락사고에 이어 두번째다. 이번 사고는 큰 인명피해가 없어 사측을 비롯한 관광객 가족들은 안도했지만 끊이지 않는 항공기 사고에 안전불감증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사측에 따르면 "당시 현지 날씨는 안개가 꼈었고 악한 비바람이 있었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은 일본운수안전위원회측이 파악하고 있어 곧 밝혀질 것"이라 전했다.

전날 사고가 발생한 기종에는 총 2명의 운항승무원이 탑승했는데 기장의 총 비행시간은 8233시간을 기록해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베테랑으로 확인됐고 부기장은 1583시간으로 확인됐다. 사고수습을 위해 15일 오전 6시께 아시아나항공 직원 37명, 국토교통부 사고조사단 8명 등 45명이 히로시마로 출발했다.

사고 여객기엔 한국인 8명, 일본인 46명, 중국인 5명, 스웨덴인 2명, 미국인 2명 등 73명의 승객과 승무원 8명을 포함해 총 81명이 타고 있었다. 이 가운데 승객 18명이 경상을 입었고 이중 일본인 승객 1명만 타박상을 입어 병원에 하루 입원했다. 일본인 13명, 한국인 2명, 중국인 2명 등 나머지 17명의 승객들은 모두 귀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추후 사고 수습이 이뤄지면 고객들에게 직접 찾아가 사과를 건네고 보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공영방송 NHK에 출연한 항공운항 전문가는 여객기가 공중에서 설치물에 부딪히고 착륙 후 활주로를 한동안 달리다가 이탈한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다"고 15일 말했다. 승객들은 기내가 심하게 요동치자 패닉에 빠졌고 설치물과의 충돌로 인해 폭발의 두려움까지 더해져 기체 탈출 직후 사고지점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내달렸다고 NHK 등이 전했다.

A대 항공운항과 교수는 "사고원인 규명이 빨리 이뤄져야 추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고에 대해 말을 아꼈다.

/정은기기자 [illegible]

현대글로비스, 평택·당진항 자동차선 전용부두 착공

720억 투자 연 40만대 처리

15일 평택당진항에서 열린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선 전용부두 착공식에서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왼쪽 세번째)과 윤의동 새누리당 국회의원(왼쪽 번째)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시삽식을 진행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 제공

현대글로비스는 평택 당진항에 자동차선 전용부두를 개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착공식을 연 현대글로비스는 720억원을 들여 최대 8000대의 소형차를 싣는 5만t급 자동차 운반선이 접안할 수 있는 자동차선 전용부두를 만들 계획이다.

부두 개발로 현대글로비스는 기존의 국내외 육상·해상 운송 사업에 항만 터미널 사업을 추가하게 됐다.

사측에 따르면 본격적인 부두 운영은 2017년 하반기부터 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현대글로비스는 신설되는 평택·당진항 1번부두에서 국내에서 생산된 자동차를 포함한 수출입 물량 40만대를 매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사의 첫 자동차선 전용부두를 운영하며 매년 약 210억원의 추가 매출을 올릴 계획이다.

이 가운데 60%는 계열사인 현대·기아자동차 아닌 비계열사 화주를 대상으로 달성할 방침이다. 평택·당진항에는 현재 총 4선석(선박 접안장소)의 자동차부두가 있다.

평택·당진항은 인근에 기아차(화성 소하리), 현대차(아산), 쌍용차(평택) 등의 공장이 있고 거대 시장인 중국과 가까운 이점이 있다.

김경배 현대글로비스 사장은 "완성차 해상운송 네트워크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항만 하역과 운영능력을 갖추게 됐다"며 "육상·해상사업에 터미널사업까지 추가해 일관 물류체계를 완성해 해외의 해운기업보다 강한 경쟁력으로 국내 해운산업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필기자 [illegible]

살짝 밟아도 부웅… 응답 빠른 '미국산 준마'

[시승기] 포드 몬데오

습식 듀얼클러치 빠른 반응
6단 파워시프트로 변속 경쾌
불안정한 서스펜션 아쉬워

포드의 신형 몬데오

이날은 비가 왔다.

포드의 신형 디젤세단 '올 뉴 몬데오' 시승회가 열린 14일 경기 파주 헤이리 마을에는 추적추적 내리는 봄비가 벚꽃을 떨어뜨려 운치를 더했다.

사측 스태프들로부터 안전에 대한 당부를 듣고 차에 올라 단번에 엑셀을 밟았다. 가장 먼저 다가온 건 빠른 응답성이다. 건식보다 작동 유연성이 우수한 습식 듀얼 클러치를 장착해도 액셀레이터를 살짝 밟기만 하면 바로 반응했다.

6단 파워시프트가 빠르게 변속하며 경쾌함을 더했다.

신형 몬데오에는 터보 차저 2.0리터 TDCi 디젤 엔진이 탑재됐다.

최고출력 180마력(ps), 최대토크 40.8kg.m의 힘을 낸다.

낮은 RPM에서도 높은 토크를 발생시켜 저속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며 연쇄적으로 동력 성능을 전달한다는 게 사측 설명이다.

정차 시 자동으로 시동이 꺼지고 출발 시 다시 시동이 걸리는 오토스타트 스톱 기능은 다른 차들에 비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지체 없이 작동했다. 핸들의 무게감이나 시트의 푹신한 정도는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고 적당했다.

불안정한 서스펜션은 아쉬운 부분이다. 도로 상황에 따라 충격이 그대로 전해졌고, 과속방지턱을 조금 빨리 지나갈 땐 차체 하부가 쓸렸다. 또 중저속에서의 응답성은 빠르지만 고속주행 시에는 힘 있게 치고나가는 맛이 없었다.

엑셀을 끝까지 밟아 RPM이 3000을 넘어 4000까지 가도록 가속도가 더디게 올라갔다. 80kg대 남성 둘이 탑승해 200km/h까지 가는 데는 힘이 달렸고 180km/h 수준까지 느리게 달도했다.

하지만 한 번 가속하면 차체가 흔들림 없이 묵직하게 잡아줬다. 속도감이 별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안정감이 들었다.

디젤엔진 소리나 풍절음은 운전 중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준으로 작았다.

실내 디자인과 센터페시아는 비교적 단순하게 구성돼 운전에 필요한 기능들로 채워졌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이름 모를 수많은 버튼으로 도배한 여타 최신 모델들에 비해 산뜻한 심플함이 도리어 신선했다. 외관 디자인의 경우 등록한 후면부가 2000cc 차체를 실제보다 작아 보이게 만들었다.

코스를 종료했을 때 연비는 13.1km/ℓ가 나왔다. 성능을 보기 위한 주행이었음을 감안하면 평상시 운전에서는 14km/ℓ 이상이 나올 듯 하다. 사측이 소개한 이 차의 복합연비는 15.9km/ℓ(도심연비 14.4km/ℓ, 고속도로연비 18.2km/ℓ)다.

기본에 충실한 올-뉴 몬데오는 트렌드(Trend)와 티타늄(Titanium) 두 가지 트림으로 판매된다.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국내 판매 가격은 3990만원부터다.

/박정일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현장르포]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가보니

하루 6만7000본 생산… 세계 최대 규모

운반부터 배터리충전까지
무인 자동화 생산시설 갖춰
초고성능타이어 메카 비결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 들어서면 노란 선을 따라 타이어부품을 옮기는 LGV(Laser Guided Vehicle)가 사람보다 먼저 방문객을 맞이한다. /한국타이어 제공

매캐한 냄새가 코를 찌른다. 노란 선을 따라 타이어부품을 옮기는 초록색 LGV(Laser Guided Vehicle)가 사람보다 먼저 방문객을 맞이한다.

14일 하루 6만7000본의 타이어가 생산되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을 찾았다. 단일 타이어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다. 약87만2000㎡(26만4000평) 면적이다. 1997년부터 총 4차의 증설과 확장을 거쳤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물량은 한국타이어 전체 생산물량의 25%를 차지한다.

금산공장의 최첨단 자동화 생산시설 덕분에 최소 인력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2800명이 4개조 3교대로 일하다보니 한 번에 26만평을 책임지는 사람은 고작 700명 안팎이다.

절로 돌아가는 기계가 요란하다. 부품 운반, 중량 측정, 반제품 적재, 고무 소성 작업까지 무인 자동화 기계가 해낸다. LGV는 안내음과 함께 타이어부품을 다음 공정으로 옮긴다. 배터리가 부족할 경우 스스로 충전소를 찾아가 충전을 할 정도로 스마트하다. 타이어 반제품을 나르는 EMS(Electronic Monorail System)은 천장에 설치된 모노레일을 타고 쉴 새 없이 타이어를 아래로 아래로 떨어뜨린다. 한국타이어 측은 이 자동화 생산시설은 금산공장이 초고성능타이어(UHPT) 생산의 중심지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금산공장의 트랙 시험장 'G트랙 아쿠아'에서는 한국타이어의 '벤투스 S1 에보2 SUV'를 장착한 포르쉐의 스포츠유틸리티(SUV) '카이엔'의 시험 주행이 진행됐다. G트랙 아쿠아는 빗길과 빙판길 등 다양한 기후 조건에서 타이어 성능을 테스트 하는 국내 유일의 젖은 노면 시험 주행로다.

마간은 스프링쿨러에서 물어나오는 S자 트랙 위를 시속 100km/h로 내달렸지만 미끄러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언노면 위에서 갑작스럽게 멈춰도 흔들림이 없었다.

한국타이어 관계자는 "시속 260km 이상의 고속 주행에서도 흔들림이 없도록 타이어의 내구성과 핸들링 성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금산=정소리기자 10sound@

나세르 알 마하셔 S-OIL CEO(왼쪽 첫번째)와 2015년 S-OIL 챔피언스클럽 대상을 차지한 이의표 하남 셀프광장주유소 대표(가운데)가 대상 깃발을 펼치며 흔들고 있다. /S-OIL 제공

S-OIL '올 챔피언스클럽' 주유소 43곳·충전소 7곳

S-OIL(대표 나세르 알 마하셔)은 연진 하얏트호텔에서 '2015년 S-OIL 챔피언스클럽' 시상식을 열고 우수한 경영성과를 낸 주유소와 충전소 대표들을 격려했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탁월한 운영 능력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하남 셀프광장주유소(대표 이의표)에게 돌아갔다. 이뮤에도 우수 주유소 43곳과 충전소 7곳 등 50곳이 '2015년 S-OIL 챔피언스클럽'으로 선정됐다.

마하셔 S-OIL CEO는 "올해 11회째를 맞은 S-OIL 챔피언스클럽 시상식은 주유소, 충전소 운영의 성공 신화를 공유하는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잡았다"며 "S-OIL은 앞으로도 계열 주유소와 충전소들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마케팅 수단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OIL은 '챔피언스클럽' 선정제도를 비롯해 고객분석시스템 운영, 제휴카드 확대 등 다양한 주유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계열주유소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S-OIL은 구도일 캐릭터 도입 등 창의적인 광고 캠페인과 다양한 고객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친숙한 브랜드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정소리기자 10sound@

에너지관리공단이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 6곳을 선정했다. /에너지관리공단

에관公, 태양광 대여사업자 6곳 선정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변종립)은 올해 태양광 대여사업자로 ▲솔라이앤에스 ▲에스파워 ▲한빛이디에스 ▲이든스토리 ▲한화큐셀코리아 ▲해왕노시가스 등 6곳을 선정해 사업협약을 맺었다고 15일 밝혔다.

6곳은 주택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15년의 대여기간(기본 7년, 연장 8년) 동안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택 소유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절약한 전기료로 매월 대여료를 지급하면 되고 대여사업자는 대여료 수입과 여분의 전력을 발전회사에 판매한 뒤 발생하는 수익으로 회수할 계획이다. /박상길기자 [illegible]@

현대·기아차, 칠레 수해지역 긴급 구호

정비서비스·생필품 지원

현대·기아차가 갑작스러운 자연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칠레 홍수 피해지역에서 지원 활동을 펼친다.

현대·기아차는 13일(현지시간)부터 17일까지 지난달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칠레 북부 아타카마주 코피아포시에서 정비 서비스를 시행하고 이재민에게 기초생필품을 전달한다고 15일 밝혔다.

칠레의 대표적 건조기후 지역이었던 아타카마는 지난달 말 갑작스러운 홍수로 사망·실종 등 인명 피해와 1만4000가구 이상의 가옥 파손, 전력시설 등 주요 산업 인프라 피해가 발생했다.

현대·기아차는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현지에 긴급 정비 인력을 파견하는 한편 ▲엔진, 변속기,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기본적인 차량 성능 점검 ▲타이어, 워셔액, 필터, 에어 매트 등 기본 소모품과 각종 오일류 보충 ▲피해차량 무상 세차 및 견인 서비스 등 수해 차량에 대한 정비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아차 칠레 대리점 직원들이 홍수 피해를 입은 현지 이재민에게 전달할 생필품을 준비하고 있다. /기아차 제공

/이정필기자 [illegible]@

'대만 야시장 먹거리 맛보세요' 15일 오전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들이 대만 야시장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대만 특유의 향신료가 첨가돼 독특한 맛을 내는 닭튀김 지파이와 조그만 바구니에 찌거나 튀겨 만드는 딤섬 등을 오는 15일부터 22일까지 전 점에서 판매한다. /롯데마트 제공

신세계 화장품·아웃도어도 고전

'비디비치' 3년째 적자, 실적 개선 걸림돌… '살로몬'도 두각 못 나타내

신세계인터내셔날(대표 최홍성)의 신규 사업이 적자에 허덕이며 속앓을 하고 있다.

2012년 시작한 화장품 사업부는 지난해 말 정유경(44·사진) 부사장의 남편 문성욱 부사장 취히드 편입되며 사업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매년 적자 폭을 키우고 있다. 2013년 하반기부터 전개하는 아웃도어 사업도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세계인터내셔날이 2012년 인수한 비디비치 코스메틱은 지난해 매출 105억원에 영업 손실 62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21% 감소됐고 적자폭은 41% 늘었다. 올해도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신세계인터내셔날이 비디비치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일각에선 오너가인 정 부사장이 화장품 사업에 관심이 많아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지난달 유상증자를 통해 비디비치코스메틱에 60억원 규모의 출자를 단행했다. 앞서 2012년 2013년에도 각각 30억 8000만원, 30억원을 지원한 것을 합하면 약 108억 원의 자금을 수혈했다. 비디비치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경민 씨가 만든 메이크업 브랜드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이 2012년 60억원에 인수했다. 현재 백화점 면세점 등에 17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의 화장품 부문 영업 손실은 2012년 24억원, 2013년 44억원, 2014년 62억원으로 매년 늘며 실적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비디비치 외에도 2013년 제일모직으로부터 이탈리아 화장품 '산타마리아 노벨라'의 국내 판권을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신세계백화점이 운영한 '뷰티컬렉션'과 스웨덴 향수 바이레도 매장을 넘겨 받았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비디비치는 원래 적자였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흑자 전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했고 잘 운영한다면 내년에는 흑자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는 매장 당 효율성을 높이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론칭 2년차인 아웃도어 브랜드 살로몬 역시 매장 확대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살로몬을 2018년까지 매장 수 220개, 매출 3000억원대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국내 판권을 인수해 2013년 하반기부터 전개해오고 있다. 하지만 매장 수는 현재 60여 개로 지난해 목표였던 80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난해 매출은 150억여 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스포츠 아웃도어를 표방, 스포티즘을 강조한 라인을 펼쳐 대비면서 포지셔닝이 애매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회사 관계자는 "유통 전략을 대리점에서 백화점으로 변경하면서 대리점 보다 백화점이 입점 절차가 까다롭다 보니 목표 매장 수 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수정기자 ksj0215@metroseoul.co.kr

롯데마트, 인니 슈퍼마켓 '반둥점' 오픈

롯데마트(대표 김종인)가 인도네시아에 슈퍼마켓 2호점이자 인도네시아 39호점인 '반둥점'을 오픈한다고 15일 밝혔다.

'반둥점'은 인도네시아 자바섬 반둥시에 지하 5층부터 지상 8층 규모로 건설되고 있는 복합 쇼핑몰이다. BEC Mall(Bandung Electronic City Mall) 1층에 1204㎡ 크기로 들어선다.

롯데마트는 슈퍼마켓 규모를 기존 대형마트 매장의 20~30% 정도로 줄이고 상품수도 인기 생필품 위주로 압축해 중산층을 타깃으로 한 슈퍼마켓 매장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동안 슈퍼마켓 사업은 롯데슈퍼에서 운영해왔으나 인도네시아의 경우 2008년 인도네시아 마크로(Makro) 19개점을 인수하며 현지 시장에 진출한 롯데마트에서 맡고 있다.

이번 반둥점 오픈으로 롯데마트는 인도네시아에서 도매 매장 24개, 소매 매장 13개, 슈퍼마켓 2개 등 총 39개의 매장을 운영하게 된다.

김영균 롯데마트 동남아본부장은 "올해 슈퍼마켓 오픈을 포함 인도네시아에 약 10여개의 매장을 추가 오픈하며 글로벌 유통업체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은미기자 21cindun@

이랜드, 미션힐즈와 레저사업 MOU

GS리테일(대표 허승조)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웅진, CJ헬스케어와 손잡고 웅진의 자연은알로에와 CJ헬스케어의 헛개수를 파우치 형태의 아이스음료로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가격은 각각 190㎖에 1500원(얼음컵 포함)이다.

지난해 파우치 형태로 선보인 아이스음료 미닛메이드와 칸타타, 조지아 등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자 추가로 유명 브랜드 음료를 파우치 형태로 선보이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자연은 알로에'는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로 790일 잘 자란 알로에를 사용해 알갱이가 생생하게 씹히는 진한 과즙음료를 파우치에 담았다.

'헛개수'는 숙취 해소 기능으로 유명한 헛개나무 열매를 엄선해 우려낸 자유 상품으로, 헛개 특유의 깔끔하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다.

김근우 GS리테일 편의점 커피·

지 마케팅디렉터(MD)는 "파우치 형태의 아이스음료를 찾는 사용자가 늘면서 새로운 맛을 원하는 수요가 있어 새로운 콘셉트의 아이스음료를 주기적으로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랜드그룹이 세계 최대 골프 리조트그룹인 미션힐즈와 손잡고 아시아 부호들을 대상으로 고급 리조트 내 초고가 빌라 분양 사업에 나선다.

이랜드(회장 박성수)는 15일 미션힐즈그룹과 중국 선전 미션힐스 본사 시무에서 레저사업에 대한 전략적 업무 협약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채은미기자 21cindun@

CJ "문화로 국가경제에 기여"

창조경제추진단 출범

CJ그룹(회장 이재현)이 15일 '창조경제추진단' 출범식을 갖고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사적 지원 체제를 가동했다.

CJ그룹은 "지주회사 대표이사 직속의 CJ창조경제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을 시작했다"면서 "민관 합동 창조경제 프로젝트를 조기에 성공시키기 위해 그룹 자원의 역량을 총 집결시킨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허민회 CJ올리브네트웍스 총괄대표를 단장으로 문화창조융합센터팀과 K-Culture Valley팀, 서울창조경제팀 등 3개 팀 30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계열사 대표들로 구성된 창조경제자문위원회를 결성해 창조경제추진단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와 합동으로 문을 연 서울 상암동 문화창조융합센터의 성장과 함께 향후 경기 일산에 구축될 K Culture Valley, 서울시 등과 협업하는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손경식 CJ그룹 회장 이날 "CJ그룹은 사업보국(事業報國) 철학을 바탕으로 문화사업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면서 "창조경제추진단 운영을 통해 융복합 문화콘텐츠가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순환되는 생태계 조성을 앞당기는데 큰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라기자 bora583@

GS25, 유명 음료를 파우치에

GS리테일(대표 허승조)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웅진, CJ헬스케어와 손잡고 웅진의 자연은알로에와 CJ헬스케어의 헛개수를 파우치 형태의 아이스음료로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가격은 각각 190㎖에 1500원(얼음컵 포함)이다.

지난해 파우치 형태로 선보인 아이스음료 미닛메이드와 칸타타, 조지아 등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자 추가로 유명 브랜드 음료를 파우치 형태로 선보이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번에 선보이는 '자연은 알로에'는 기존 상품과 마찬가지로 790일 잘 자란 알로에를 사용해 알갱이가 생생하게 씹히는 진한 과즙음료를 파우치에 담았다.

'헛개수'는 숙취 해소 기능으로 유명한 헛개나무 열매를 엄선해 우려낸 자유 상품으로, 헛개 특유의 깔끔하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다.

김근우 GS리테일 편의점 커피·차 마케팅디렉터(MD)는 "파우치 형태의 아이스음료를 찾는 사용자가 늘면서 새로운 맛을 원하는 수요가 있어 새로운 콘셉트의 아이스음료를 주기적으로 선보이게 됐다"고 말했다.

당신의
은퇴는
쾌청합니까?
퇴직연금과 체크카드가 만났습니다
금융수익에 추가 적립혜택까지
able i max Card
퇴직연금상품
연 12%
퇴직연금 세액공제
700만원
체크카드 소득공제
30%
i max
현대증권

일동후디스, '유기농 요거트 즐기세요' 1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모델들이 '후디스 유기농 그릭요거트'를 선보이고 있다. '후디스 유기농 그릭요거트'는 한꺼 첨가물을 쓰지 않고 1A 등급보다 더 깨끗한 단일목장의 국내산 유기농 원유와 유산균만 사용해 만들었다. /일동후디스 제공

카페베네·엔제리너스 '빨간불'

작년 커피전문점 희비 이디야·할리스 선전

	[illegible]	[illegible]
이디야	1162억2900만원(+47.9%)	130억900만원(+66%)
커피빈	1463억원(-2.1%)	124억원(+38%)
할리스커피	803억1300만원(+17.3%)	55억7300억원(-20%)
엔제리너스	1555억6200만원(-8%)	76억900만원(-26.2%)
카페베네	1464억원(-22%)	31억원(-21.5%)

지난해 커피전문점간의 희비가 엇갈렸다.

이디야커피·할리스커피 등은 성장한 반면 카페베네와 엔제리너스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포화된 커피시장 속에서 출혈 경쟁이 결국 수익성 감소라는 부메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디야의 지난해 매출은 1162억2900만원, 영업이익은 130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7.9%, 66.6% 늘었다.

이디야 관계자는 "본사에서 마케팅 비용을 부담을 하고 기본적으로 스타마케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수익성이 좋았다"며 "임대료 등 비용 최소화로 가맹점 수익이 좋아 자연스레 수익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커피빈코리아의 영업이익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매출은 1463억원으로 전년 대비 2.1% 느는데 그쳤지만 영업이익은 124억원으로 38% 증가했다.

할리스커피를 운영하는 할리스F&B의 같은 기간 매출은 803억1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7.1% 신장했다. 영업이익은 다소 줄어든 55억7300만을 기록했다.

반면 엔제리너스는 지난해 처음으로 매출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엔제리너스의 지난해 매출은 1555억6200만원, 영업이익은 76억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8%, 46.2% 줄었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해 영업이익이 다소 손해를 봤다"며 "디저트산업 등 고객 선택이 확대 되면서 고객 이탈이 있었던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품질 개선과 커피 전문점 매장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카페베네의 매출도 줄며 3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1464억원, 영업이익 3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 21.5% 감소했다.

회사 관계자는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것은 아니다"라며 "가맹사업 위주로 전에 비해 확장에 속도가 더뎌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커피전문점의 점포 증가 속도가 주춤해지면서 시장이 포화상태에 들어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 개인 창업 열기가 확산하면서 한집 건너 커피전문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커피시장의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지만 경쟁이 격화되면서 시장이 포화되고 있다"며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마케팅에 의존해 몸집을 늘리던 전략에서 벗어나 생존을 위한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보라기자 bora9812@metroseoul.co.kr

11번가 "신데렐라를 찾습니다"

141명 신발증정… 28일까지

SK플래닛(대표 서진우)이 운영하는 11번가가 오는 28일까지 '신데렐라를 찾습니다'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11번가 여성 코너인 '레이디라운지'에서 매일 1종씩 총 14종의 신상 슈즈를 공개하면 소비자가 발사이즈를 입력해 참여할 수 있다.

해당 신발의 사이즈는 다음날 오전 11시에 발표되며, 사이즈를 맞힌 소비자 141명을 추첨해 신발을 무료로 증정한다.

이날부터 선보이는 신데렐라 슈즈는 일본 브랜드 '꼼데가르송 외 스니커즈'다. 깔끔한 흰색 바탕에 꼼데가르송 특유의 빨간 마크가 포인트인 캔버스화다.

이밖에 이탈리아 브랜드 '골든구스', 프랑스 브랜드 '레페토' 등 수입명품 슈즈, 슈콤마보니/지니킴 등 디자이너 슈즈, 나이키/아디다스 인기 운동화가 매일 공개된다.

한편 11번가는 지난 3월 여성 전용 코너인 '레이디라운지'를 오픈했다. 쇼핑은 물론 자기계발 강연, 무료클래스 등 여성특화서비스를 한데 모아 선보이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신진 피부과학자 지원

아모레퍼시픽(대표 심상배)은 15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리는 2015년도 대한피부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아모레퍼시픽 피부과학자 연구지원 프로그램' 협약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피부과학자 연구지원 프로그램'은 국내 피부 연구 역량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10년 아모레퍼시픽과 재단법인 피부과학연구재단이 연구지원 협약을 맺어 진행돼 왔다. 지난해까지 총 20명의 신진 피부과학자가 선정됐으며 올해까지 총 8억원의 연구비가 지원된다.

해당 사업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됐으며 이번 협약식을 통해 그 기간이 5년 더 연장됐다. 2019년까지 매년 네 명의 신진 피부과학자를 선정해 매년 2000만원 씩 2년간 연구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KT&G, 사회공헌에 3300억 쏜다

담뱃세 인상 따른 '재고 차익' 사회환원

KT&G(사장 민영진·사진)가 담뱃세 인상에 따른 이른바 '재고 차익' 최대 수천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다.

15일 KT&G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초 담뱃값이 인상되면서 의도하지 않게 일회성 재고 차익이 발생함에 따라 이 수익의 상당 부분을 사회공헌 사업에 쓸 계획이다.

재고 차익은 담뱃값 인상에 앞서 출하한 담배를 인상 이후에 판매하는 과정에서 얻게 된 세금 차익을 말한다.

다만 KT&G는 정확한 재고 차익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다만 재고 차익 등으로 3300억여원의 재원을 마련해 앞으로 4년간 ▲소외계층 교육·복지 지원 1300억원 ▲문화예술 지원 1300억원 ▲글로벌 사회공헌 및 소비자 권익 보호(흡연환경 개선 사업 등) 700억원 등에 투자할 계획이다.

KT&G 관계자는 "이번 담뱃세 인상으로 담배수요가 약 34% 줄어 KT&G의 향후 5년간 수익도 약 2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사실 이 같은 실적 악화에 대비해 일비성 재고 유동수익이라도 재투자가 시급한 상황이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KT&G에 따르면 담배제조사는 안반적으로 원활한 공급을 위해 항상 일정 수량의 '안전 재고'를 두고 있다. 올 1월 1일자로 담배 1갑에 붙는 제세부담금(세금·건강증진기금 부담금 등)이 1550원에서 3318원으로 1768원(4500원짜리 담배 기준)이 늘자 이 재고에 자동적으로 이익이 더해졌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올해 출고된다면 갑당 3318원의 세금 가금을 내야하지만 작년에 출고된 안전 재고 제품은 갑당 1550원의 세금 가금만 납부해 1768원의 차익이 생긴 것이다.

일각에서는 담배제조사 전체 재고 차익으로 6000억원이라는 추정값이 거론되고 있지만 담배제조사가 재고량 등을 영업비밀에 부친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따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KT&G 관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오히려 판매점 공급량을 평소 대비 104% 수준으로 늘렸고 같은 해 12월 16일 정부가 고시를 수정한 이후에는 120%까지 확대했다"며 "동시에 공장 출고량은 30% 이상 크게 줄여 보유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보라기자 bora9812@

신랑신부 맞춤 서비스… '허니문호텔' 인기몰이

국내 첫 디자인 호텔스 멤버 '네스트호텔'

오후 2시까지 체크아웃 연장 지퍼게수기 무료 대여도

국내 최초의 디자인 호텔스 멤버인 '네스트호텔'이 예식 당일 달콤한 하루를 보낼 수 있는 허니문 호텔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 영종도에 있는 네스트호텔은 특1급 호텔로, 베를린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호텔 컬렉션 '디자인 호텔스'의 국내 최초의 멤버다.

디자인 호텔스는 매년 전세계 400개 이상의 호텔이 등재를 희망하지만 디자인뿐만 아니라 창의성·경영·서비스 등의 깐깐한 심사기준을 통과한 단 5%만이 선정된다. 유럽의 경우 숙소를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

네스트호텔은 독특한 외관과 주변 풍광으로 신혼부부의 마음을 사로잡지만 이곳에서의 허니문이 특별한 이유는 고객에 대한 세심한 배려 때문이다.

'러브 인 더 문라이트(Love in the moonlight)'라는 허니문 스페셜은 신혼 첫날밤을 보다 더 로맨틱하게 만들어줄 '허니문 기프트'와 무료 와인 1병을 제공해 신부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피트니스센터의 스파임장과 노천탕은 신랑의 지친 심신을 풀어준다.

세세한 배려도 눈에 띈다. 오후 2시까지 체크아웃 시간을 연장해주는 것은 물론 7일 간의 장기 주차도 무료로 가능하다. 요청시 지퍼게수기도 무료로 대여해준다. 네스트호텔의 이 같은 배려는 엄사 분주하게 결혼식을 마치고 녹초가 된 몸을 이끌고 떠나는 신혼여행을 보다 기분 좋은 추억만 가득한 허니문을 만들어준다.

네스트호텔의 디럭스룸

러브 인 더 문라이트(Love in the moonlight) 허니문 스페셜은 네스트호텔 홈페이지(http://www.nesthotel.co.kr)에서 오는 4월 30일까지 예약 가능하다. 문의 (032) 743-9000

/네스트호텔 제공

/정은미기자 ficirclun@metroseoul.co.kr

강강술래 "갈비 뜯고 라이브공연도 즐기세요"

늘봄농원점 활력 이벤트 주문한 양만큼 무료포장 헤브나인스파 티켓 증정

외식문화기업 강강술래(대표 최종만)가 고양 늘봄농원점에서 알뜰하게 식사를 즐긴 후 산책과 이의 라이브공연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새봄맞이 힐링 외식 이벤트를 벌인다.

늘봄농원점(031-965-2300)은 이달 말까지 주중(주말 제외)에 소고기 구이메뉴를 시키면 한우불고기포장상품을, 돼지고기구이 메뉴를 시키면 돼지양념 포장상품을 결제 시 주문한 양만큼 무료로 증정한다.

같은 기간 주말에는 포장상품 1+1 덤 증정 행사를 통해 슬래랑 냉구이(4대+4대)는 2만6000원, 퀸돈양념구이(250g+250g)는 1만7000원, 돼지양념구이(250g+250g)는 1만3000원에 판매한다.

한편 이달 말까지 전 매장에 설치된 응모함에 명함을 넣으면 추첨을 통해 라송포레스트 헤브나인힐링스파(스파·사우나·찜질방) 이용티켓(1인2매)도 준다. 또 강강술래 4월 결제영수증을 지참하고 6월 말까지 방문하면 스파이용권 50% 할인 혜택을 준다.

/최보라기자 bora6@

예다함상조, 영화 '화장' 효과 톡톡

영화 '화장'의 인기 덕분에 The-K예다함상조(대표 김호영)가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9일 개봉한 임권택 감독의 102번째 영화 '화장(火葬)'이 작품성을 인정받아 관객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극중 보이진 The-K예다함상조(이하 '예다함')의 상조서비스에 대한 이미지가 관객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예다함은 영화 '화장(火葬)'에서 오상무(안성기 분) 아내(김호정 분)의 염습(殮襲), 장례, 화장(火葬)을 연출하는 장면에 필요한 장례용품과 배우들의 상복, 자문, 장례 전문 인력을 지원했다.

김호영 예다함 대표는 "이번 협찬을 통해 국내 소비자뿐 아니라 국제영화제를 통해 해외에 한국의 장례문화와 상조서비스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차별화된 문화 마케팅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상조브랜드로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생명의 소중함 나눠요 25일 '라이프 콘서트'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자살예방행동포럼 라이프(LIFE, 대표 이명수 박인준 송인한, www.lifewoorigu.or.kr)는 보건복지부와 함께하는 '라이프콘서트'를 25일 을지로입구 페럼타워 3층 페럼홀에서 개최한다.

라이프콘서트에서는 삶과 생명의 소중함,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는 우리 자신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25일 오후 1시30분부터 4시까지 2시간반 동안 진행된다. 나를 살리는 그림 전시를 시작으로 연사들의 강연이 이어진다.

라이프콘서트는 '왜 사냐고 묻거든 어라'는 주제 아래 삶과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건강한 삶의 생명력을 전하는 TED 형식의 토크 콘서트로 지난 2014년부터 2월부터 격월로 진행되고 있다.

롯데칠성 '트레비 자몽' 100% 천연자몽향 첨가

롯데칠성음료(대표 이재혁)는 100% 천연자몽향을 넣어 상큼함을 더한 탄산수 신제품 '트레비 자몽'을 선보였다고 15일 밝혔다.

트레비 자몽은 상큼하고 쌉싸름한 맛으로 젊은 여성에게 사랑받는 과일인 자몽의 천연향을 담은 제품이다. 칼로리 트랜스 지방 당류 제로(zero)로 몸보다 더 시원한 청량감을 느낄 수 있는 탄산수라고 회사는 설명했다.

패키지도 소비자의 상황에 맞춰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280ml 병, 355ml 캔, 500ml 페트를 포함해 패밀리 사이즈인 1.2ℓ 페트를 내놓았다.

/김보라기자

지하철역 직원 절반 "승객에게 폭행당했다"

서울메트로가 역 직원 1896명을 대상으로 피해사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55%가 승객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시행된 이 조사에서는 전체 중 56%를 차지하는 769명이 최근 3년 내 승객에게 신체적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폭행 피해는 2회 이내가 30%로 가장 많았고 6회 이상도 8%에 달했다. 폭행을 가하는 승객의 성별은 98%가 남성으로, 50~60대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 피해의 64%는 취객 응대 시에 발생했으며 부정승차 단속 때 발생한 비율도 8%에 이르렀다. 폭행이 이뤄지는 주요 시간대는 22시 이후 심야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윤정원기자 garden@

미즈메디병원, JCI 재인증 성공

미즈메디병원(병원장 김대윤)이 지난달 23~27일 실시한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평가에서 산부인과전문병원 최초로 재인증에 성공, 2018년 3월까지 JCI 인증기관으로 평가됐다고 15일 밝혔다.

평가위원들은 15개 평가부문 1125개 평가 항목을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환자진료, 약물관리와 사용, 감염예방과 관리, 시설 관리와 안전, 정보관리, 직원교육 및 인사 등 병원에서 이뤄지는 모든 절차와 시스템을 확인했다.

김대윤 병원장은 "지난 1주기 보다 강화된 인증기준이 적용되었지만 높은 수준의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음을 다시 인정받았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JCI 재인증을 바탕으로 앞으로 국제적 수준을 갖춘 환자 안전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국제 인증 산부인과전문병원으로 자리매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만 하면 완판, 계약률 100% 아파트 속출

인기 아파트 계약 시작 3~4일 만에 판매 완료
'100% 계약' 마케팅 꼼수 우려 … 주의해야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계약 시작 3~4일 만에 완판 기록을 세우는 단지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한 달 이내 조기 계약률이 50%만 돼도 성공한 것으로 여기던 1~2년 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1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림산업이 경기도 용인 풍덕천동에 공급한 'e편한세상 수지'가 정당계약일 사흘 만에 100% 계약 마감됐다.

정당계약일이란 1·2순위 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3일간 진행하는 1차 계약 기간을 말한다. 이때 포기자가 나오면 예비 당첨자에게 기회가 넘어가거나 선착순 계약에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아무리 인기가 많은 단지라도 최소 1~2명의 포기자나 부적격(부정) 당첨자는 나오기 마련이다. 이에 정당계약일 내 완판은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에 였다.

대림산업 분양관계자는 "지난 10일 오후 6시까지 정당계약을 실시한 뒤 남은 물량은 예비 당첨자에게 판매했다"며 "모델하우스에서 그날 밤 10시까지 미계약 세대분을 판매한 결과 3일 만에 100% 계약률을 기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여달 동탄2신도시에서 계약을 진행한 금성백조주택 '예미지 와 이어이스동서 '예일린의 뜰'은 4일 만에 완판에 성공했다. 앞서 지난달 반도건설이 공급한 동탄역 반도유보라 아이비파크 5.6과 6.0' 역시 3일 만에 100% 계약을 마감했다.

아파트뿐 이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경기도 수원 광교신도시에 선보인 '힐스테이트 광교' 오피스텔은 이틀 만에 계약이 끝났다. 한강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공급한 오피스 '한강 프라이빗 타워'는 하루 만에 판매가 마무리됐다.

e편한세상 수지 계약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찾은 당첨자들

분양대행사 관계자는 "전세난과 저금리 시대를 맞아 아파트, 수익형부동산 등으로 대거 자금이 유입되면서 입지가 좋은 단지들을 중심으로 단기 완판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약 후에도 자격이나 서류 부적격으로 취소되는 사람이 나오기도 해 100% 계약됐다고 말한 뒤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며 "완판이 안 됐더라도 인기 단지인 점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업체 측의 100% 완판 주장이 마케팅의 일환일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계약자 이탈을 막고, 프리미엄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린다는 지적이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업체들이 100% 계약'이라고 해도 공식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판매율 제고를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리거나 업체 관계자들이 계약해 프리미엄을 붙여 파는 등 일부 비양심적인 곳들도 있는 만큼 100% 신뢰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서산옥기자 ms0820@metroseoul.co.kr

서울 아파트 분양가 1년새 12%↑

서울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1년새 12.1% 올랐다. 지난 1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분양가 상승폭이 더 커질 전망이다.

15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2014년 서울 3.3㎡당 평균 분양가는 2019만7000원으로 전년 1800만9000원보다 12.1% 올랐다.

도심권은 2013년 1770만9000원에서 2014년 2430만6000원으로 증가 폭(37.3%)이 가장 컸다. 이어 강서권이 1368만3000원에서 23.7% 오른 169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강남권은 16.9% 오르는 데 그쳤다. 반면 강북권은 2013년 1311만4000원에서 1279만5000원으로 31만9000원(2.4%) 하락했다.

올해 4월 이후 서울 분양물량은 총 62곳 1만6389가구다. 권역별로 ▲도심권 5659가구 ▲강북권 5374가구 ▲강남권 2827가구 ▲강서권 2524가구 등이다.

이중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총 49곳, 1만3270가구로 전체의 81.0%를 차지한다. ▲도심권 5659가구(100.0%) ▲강북권 4159가구(77.3%) ▲강남권 2827가구(100.0%) ▲강서권 625가구(24.8%)다.

닥터아파트 관계자는 "도심·강남권은 재건축과 재개발 일반분양분의 비중이 강서·강북권보다 높아 앞으로 분양가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윤정원기자 [illegible]

대한적십자사 기부금 전달식 건설공제조합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 본사에서 '희망드림 프로젝트' 사업 관련 전달식에서 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15일 밝혔다. 김호권(왼쪽)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과 이정금 건설공제조합 전무이사가 기부금 전달식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건설공제조합 제공

대림산업, 이달만 수도권 3곳서 1859가구 공급

대림산업은 이달 서울 서대문구와 중랑구, 인천 등 수도권 3곳에서 1859가구(오피스텔 포함)를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

서대문구에서는 725가구를, 중랑구에서는 299가구를 분양한다. 인천에서는 835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서대문구 북아현뉴타운 1-3구역에 짓는 'e편한세상 신촌'은 오는 17일 모델하우스를 오픈한다. 지하 5층, 지상 34층 22개동 전체 2010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7㎡ 100실의 오피스텔 ▲59~114㎡ 625가구의 아파트를 일반 분양한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오개역에 인접한 곳이다.

중랑구 묵동에서도 이달 말 'e편한세상 화랑대' 아파트를 공급한다. 지하 4층, 지상 12층~25층, 12개동, 전체 719가구다. 이 중 ▲59㎡ 17가구 ▲84㎡ 275가구 ▲ 76㎡ 7가구 등 총 299가구가 일반에 분양된다.

인천 남동구 서창2지구에 공급되는 'e편한세상 서창'은 지난 10일 모델하우스를 열었다. 공개일부터 3일간 총 2만5000여명이 방문했다. 지하 1층, 지상 25층, 8개동, 835가구, 전용면적 84㎡ 단일 주택형으로 구성된다. 15일부터 이틀간 순위별로 청약을 받는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서울과 인천 모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구성됐다"며 "국내에서 가장 두꺼운 60mm 바닥 차음재가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정원기자

주택경기 기대감 소폭 상승…안정세 유지

올 들어 내내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온 주택시장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4월까지 이어졌다. 지역별로 소폭의 등락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의 안정세를 보였다.

주택산업연구원은 4월 주택경기실사지수(HBSI)를 조사한 결과 주택시장 전반의 동향을 나타내는 주택사업환경지수가 전월보다 3.8포인트 오른 146.2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서울이 전월 대비 2.8포인트 하락했으나 152.2로 여전히 높았고, 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4.6포인트 상승해 147.4를 기록했다. 지방은 0.9포인트 뛰어 123.7로 집계됐다.

김지은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주가 하락에 대한 우려 감소, 전세난으로 인한 실수요자와 저금리로 인한 투자수요 증가 등이 맞물리며 주택시장환경지수의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56.9로 가장 높았고, 전북·강원으로 110.3으로 가장 낮았다. 최고 상승지역은 14.6포인트 오른 대전(128.1), 최고 하락지역은 13.9포인트 내린 전북(110.3)으로 파악됐다.

분양시장이 활기를 띠면서 분양 관련 지수는 일제히 개선됐다. 분양계획지수는 10.9포인트 오른 152.5, 분양실적지수는 11.9포인트 상승한 156.6, 미분양지수는 4.9포인트 떨어진 48이다.

다만 주택건설 수주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수들은 약세를 가리켰다. 재개발지수와 재건축지수는 각각 1.0포인트씩 빠지며 104.3, 105.4를 기록했다. 향후 3년간 대규모 택지지구 지정이 중단됨에 따라 공공택지지수만 1.9포인트 올라 130.3을 나타냈다.

김지은 연구원은 "분양시장의 인기는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분양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서산옥기자

metro entertainment E

'전국노래자랑' 같은 배우 되고 파

박철민(48)은 맛깔스러운 사투리와 즉흥적인 애드리브 연기가 장기인 배우다. 그는 자신의 장기를 살려 스크린 속에서 주로 코믹한 감초 캐릭터를 맡아 관객에게 웃음을 선사해왔다. 그러나 다양한 역할에 도전해야 하는 배우가 대중에게 하나의 이미지로만 각인되는 것은 치명적이라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박철민이 지난 여름 배우로서 깊은 외로움과 마주하며 고민의 시간을 보낸 이유다.

연기 고민할 무렵 받은 시나리오
선악 넘나드는 악역 캐릭터 매력
'어벤저스2'와 맞대결 긴장 안해

"작년 여름에 출연하기로 이야기하던 작품이 두 세 편 있었어요. 그런데 작품들이 한두 달 사이에 다 잘 안 됐어요. 출연료도 맞췄는데 말이죠. 다시는 무대에 못 설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절대적인 외로움에 빠진 시간이었어요."

돌아보면 박철민이 코믹 연기에만 능한 배우는 아니었다. '혈의 누'에서는 악역 연기로 강한 인상을 남겼고 '또 하나의 약속'에서는 절절한 부성애 연기로 진한 여운을 남기기도 했다. 하지만 박철민 스스로는 자신의 연기가 점점 더 식상하고 정형적이 돼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고민을 안고 있을 무렵 새로운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영화 '약장수'(감독 조치언)였다.

'약장수'는 어머니들을 모아 각종 건강식품과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으로 불리는 홍보관을 무대로 소시민의 애달픈 삶, 그리고 독거노인 문제를 다룬 영화다. 박철민은 극중에서 홍보관을 운영하는 철중 역을 맡았다. 늘 친절하게 웃는 얼굴이지만 자신의 이익과 목표를 채우지 못했을 때는 악랄하게 변신하는 영화의 주인공인 일범(김인권)을 각박한 현실로 내모는 악역 캐릭터다.

"시나리오를 받고 '이런 독특한 캐릭터가 나한테 왔네?'라고 생각했어요. 이전까지 안 해본 역할이라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들었죠. 선과 악을 넘나드는 캐릭터의 매력 때문에 저예산의 작은 영화임에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박철민은 철중을 "돈만 지향하는 각박한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아등바등하다 보니 비열하고 악마 같은 행동을 하는 인물"이라고 이해했다. 악한 인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수긍할 부분도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철중의 신념은 단 하나. 자신이 제공한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의 보상이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다. 한없이 선한 얼굴로 부모 없는 노인들에게 '효(孝)'를 제공하는 철중이 그 대가로 돈이 입금되지 않는 순간 악랄한 인물이 되는 것은 그런 이유에서다.

양면성을 지닌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박철민은 이전과 달리 진지한 정극 연기를 펼쳤다. 노인들 앞에서 제품을 홍보할 때는 특유의 애드리브 연기를 펼쳤지만 일범과 감정을 주고 받는 신에서는 웃음을 누른 채 연기에 임했다. 철중이 웃지 않을 때 얼굴의 주름을 통해 전해지는 서늘한 기운은 이번 영화에서 발견할 수 있는 박철민의 새로운 모습이다.

"나도 이전까지는 몰랐던 표정이에요. 내가 아닌 것 같기도 해서 만족스러웠어요. 철중이 일범과 사람들을 다그치는 장면을 찍다 보니 연기가 신이 나서 스스로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촬영 초반보다는 후반에 연기한 장면들이 더 마음에 듭니다."

'약장수'는 '어벤저스: 에이지 오브 울트론'과 같은 날인 오는 23일 개봉한다. 박철민은 "우리 영화가 지닌 진정성의 힘을 믿는다"며 "엄청난 규모의 오락영화에 맞서는 제작비 4억원의 절절한 한국영화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솔직한 기대를 나타냈다. 박철민의 소망은 소박하다. 홍보관을 통해 독거 노인의 이야기를 담은 이 영화를 통해 관객들이 자신의 어머니 그리고 할머니를 조금이나마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다.

박철민은 "완벽한 연기, 최고의 연기를 할 배우가 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그저 "'전국노래자랑'처럼 어딘가 부족해도 희로애락을 전하는 배우"로 대중의 기억에 남고 싶을 뿐이다. '약장수'로 새로운 역할을 경험한 그는 자신이 만나보지 못한 인물로 또 다시 관객과 만나기 위해 배우의 길을 부단히 걸어가고 있다.

/장병호기자 solanin@metroseoul.co.kr
사진/라운드테이블(김민주) 디자인/최송이

star bag

이별 아픔 담은 신곡

그룹 코요태의 보컬 신지가 15일 정오 솔로 싱글 앨범 '늦은 후회'를 발표한다. 신지는 지난 2008년 첫 솔로 앨범 '[illegible]'을 시작으로 '사랑을 찾아서', '아 모양 어깨로', '여자를 울렸으니까' 등 솔로곡을 꾸준히 발표했다. '늦은 후회'는 신인 작곡가 조예영의 데뷔 작품으로 신지의 애절한 음색과 잘 어울리는 정통 발라드 장르다. 이별의 아픔을 표현한 가사가 돋보인다.

세월호 추모곡 수익금 기부

팝페라 테너 임형주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세월호 추모곡 '천개의 바람이 되어'의 음원 수익금 5700여만원을 기부했다고 임형주의 음반 유통사 유니버설뮤직이 15일 밝혔다. 임형주는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이 노래가 각종 행사에서 널리 쓰이자 공식 추모곡으로 헌정하고 음원 수익금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화장품 모델로 세련미 발산

배우 조윤희가 아모레퍼시픽의 브랜드 '베리떼' 모델로 발탁됐다. 브랜드 관계자는 "이지적이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와 나잇이 [illegible] 건강하며 깨끗한 피부를 지녔다는 점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윤희는 현재 영화 '조선 마술사'를 촬영 중이며 KBS2 드라마 '프로듀사'에서 김수현의 첫 사랑 역으로 특별출연할 예정이다.

드라마 OST로 컴백

그룹 자우림의 보컬 김윤아가 OCN 토요드라마 '실종느와르 M'의 OST '자각몽'으로 컴백한다. '자각몽'은 김윤아의 몽환적인 목소리와 죽은 영혼들의 이야기를 대변하는 듯한 가사가 만난 노래다. '쇼미더머니3'로 실력을 인정받은 래퍼 육지담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다. 드라마 '킬미힐미'의 OST '환청'을 만든 작곡가 지그재그 노트(ZigZag Note)가 작곡했다.

책으로 돌아보는 세월호 1주기

유가족 편지글·학문적 분석 담아 '잊지 않겠습니다' 등 잇따라 출간

누구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은 쉽다. 그러나 그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며 같이 아파하는 것은 쉽지 않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이 지난 지금 누군가는 세월호를 잊으라고 말한다. 하지만 수많은 아이들을 검은 바다로 떠나보내야 했던 가족의 아픔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은 채 그대로 남아 있다. 세월호를 기억해야만 하는 이유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출판계에서는 세월호를 다양한 시선으로 기록한 책들이 출간돼 눈길을 끈다. 여전히 현재진행형인 세월호의 의미를 되새기는 책들이다. 남겨진 자들의 아픔을 망각하지 않고 기억하길 바라는 마음도 담고 있다.

'잊지 않겠습니다'(416가족협의회, 김기성, 김외우 엮음, 박재동 그림, 한겨레출판)는 한겨레에서 2014년 6월 15일부터 세월호 추모 기획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연재한 편지글을 모은 책이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 학생들의 얼굴 그림과 가족들의 절절한 심경을 담은 편지글이다. 시사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그림을 그렸다.

학생 114명과 선생님 2명의 이야기를 통해 책은 세월호의 슬픈 기억을 잊지 않겠다는 강한 다짐을 독자에게 전한다. 뜻하지 않은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들이 쓴 편지에는 어둠이 죄의식과 무기력감과 싸우기 위해 안간 힘을 다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신문 연재 당시 싣지 않았던 유가족들의 도보순례길 이야기와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 등도 '우리들의 이야기'로 함께 수록됐다.

'세월호를 기록하다'(오준호 지음, 미지북스)는 침몰과 구조, 출항, 선원들의 행적에 이르기까지 150일 동안에 걸친 세월호 재판 기록을 바탕으로 한 실록이다. 세월

호 참사 시민기록위원회 작가기록단에 속한 오준호 씨가 매주 2~3회씩 33차례가 넘는 공판을 방청하면서 관련 당사자들과의 인터뷰와 자료 수집을 통해 저술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사고 당시 배 안팎에서 있었던 일을 생생한 다큐멘터리로 재구성했다. 이를 통해 사고 당시 승객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고 조타실과 기관실의 선원들은 어째서 가장 먼저 탈출했는지, 123정의 해경 대원들은 왜 그토록 무능했는지를 답했다. 박종대 416가족협의회 진상규명분과장은 추천사를 통해 "이 책에는 재판정에서 유가족들의 간절한 바람이 깨져 가는 과정이 한 편의 영화처럼 그려져 있다"고 말했다.

'세월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이종진 지음, 이학사)와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김익진 외 지음, 한울 아카데미)는 각각 철학과 사회학의 시선으로 세월호 참사를 다룬다. 철학자 이종진은 '세월호는 우리에게 무엇인가'에서 국가, 신자유주의, 윤리, 존엄, 한국사회라는 다섯 가지 주제를 통해 세월호가 우리에게 남긴 질문을 파헤친다. '세월호가 우리에게 묻다'는 9명의 사회학자가 참여해 세월호 참사의 문제가 결국 공공성과 연결된다는 해석을 제시한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11년 만의 화려한 컴백

지누션 신곡 발표… 다음 목표는 해외 진출

힙합듀오 지누션이 11년의 공백을 깨고 화려하게 컴백했다.

지누션은 15일 0시 신곡 '한번 더 말해줘'를 공개해 엠넷닷컴, 올레뮤직, 지니 등 주요 8개 음원차트 1위를 휩쓸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인의 마음으로 임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션은 "YG엔터테인먼트의 글로벌 신인그룹 지누션"이라며 "YG에서 11년 동안 후배 양성하고 해외 진출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제 직접 해외에 진출해볼까 한다. 밀어 달라"고 말했다. 지누는 "음원 공개 직전까지 설레고 두려웠다. 1997년 6월 14일 첫 데뷔 무대 오르기 전 날 느낌 같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누는 "디지털 싱글이 아닌 음반을 내리면 어반에 1위를 해야 한다. 음원 차트에서 1위 했으니 전망이 좋다"고 밝혔다.

올해 YG 소속 아티스트 중 첫 컴백은 빅뱅으로 예고돼 있었으나 지누션이 빅뱅보다 약 2주 먼저 출발한 것에 대해 션은 "빅뱅 친구들에게 미안하다. 하지만 우리는 11년을 기다렸으니 이해해주리라 생각한다. 빅뱅 나오기 전에 활동해야 1위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말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이어 "빅뱅 월드투어에서 오프닝 무대를 하고싶다. 해외에 나가면 우리는 진짜 신인이다. 우리의 음악을 해외 팬들에게 들려주고 싶다"고 덧붙였다.

지누는 이번 주말 음악 방송을 앞두고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걱정이다. 격한 안무는 없고 박자를 타는 정도로 즐기면서 무대를 할 예정이다. 포인트 안무는 양현석 형이 직접 짰다"고 밝혔다. /김지선 기자

기억은 사라져도 여전히 남는 삶

film review

/장병호 기자 solanin@

■ 스틸 앨리스

가억을 잃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살면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생각을 영화 '스틸 앨리스'를 보면서 하게 됐다. 부와 명예, 명성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스틸 앨리스'는 결국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것은 그런 가치들이 아니지 않으냐고 넌지시 이야기를 건넨다.

영화는 뉴욕 콜롬비아대학교의 언어학 교수 앨리스(줄리안 무어)의 이야기를 그린다. 열여덟 나이에 어머니와 언니를 교통사고로 떠나보낸 그녀는 모든 것을 가진 삶을 얻기 위해 쉴 없이 학문에 매달려왔다. 행복한 결혼생활에 훌륭하게 자라난 두 딸과 아들까지. 든 그녀의 삶은 누가 봐도 완벽한 그 자체였다.

그러나 평온했던 앨리스의 삶은 뜻하지 않게 찾아온 알츠하이머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한다. 평생을 언어학 연구에 바쳐온 그녀는 단어가 점점 생각나지 않는 자신을 바라보며 부끄러움을 넘어선 수치심을 느낀다. 자신의 모든 것과 다름없는 기억을 잃어간다는 사실은 앨리스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든다.

덤덤하게 담은 알츠하이머 환자 이야기
줄리안 무어 열연으로 공감가게 그려내

결국 그녀는 눈물과 함께 "내가 죽어가는 기분이야. 내 평생을 잃어버릴 것 같아"라며 무너져 내리고 만다.

알츠하이머라는 불치병을 소재로 삼았다는 점에서 신파 드라마를 떠올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스틸 앨리스'는 오히려 덤덤한 시선으로 알츠하이머 환자의 감정 변화를 올곧이 담아내 신파보다 더 큰 울림을 관객에게 전한다. 특히 주인공에 엘리트 출신의 대학교수라는 설정은 기억과 함께 지성까지 잃어가는 알츠하이머의 고통을 더욱 공감가게 만든다.

그 중심에는 앨리스 역을 맡은 줄리언 무어가 있다. 줄리언 무어는 내면에서는 존재의 붕괴를 겪고 있지만 그 아픔을 외적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앨리스의 감정을 편안하면서도 자연스러운 연기로 펼쳐 보인다. 그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기억상실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실감하지 않을 수 없다.

명장면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영화 후반부의 장면을 기억하고 싶다. 병의 악화로 말하는 것조차 힘들어진 앨리스에게 작은 딸 리디아(크리스틴 스튜어트)가 연극 대본을 읽어주는 장면이다. 앨리스의 기억은 그렇게 사라져가지만 그녀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다. 여전히(still) 앨리스로 남아 있는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 오랜 여운을 남긴다. 12세 이상 관람가. 4월 30일 개봉.

/장병호 기자

2015.5.2 (토) 2PM 예술의전당 IBK챔버홀

지휘 서희태 연주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주최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 Millennium Symphony Orchestra 티켓 R 4만원 S 3만원 A 2만원

예매 SAC Ticket 02-580-1300 인터파크 1544-1555 공연문의 02-6292-9370

"연우진과 코믹 본능 일깨우는 사이"

조여정, '이혼변호사는 연애중'으로 안방 컴백

조여정과 연우진이 SBS 새 주말극 '이혼변호사는 연애중'에서 사랑에 빠진 변호사로 변신한다.

드라마는 변호사였던 사무장 고척희(조여정)와 사무장이었던 변호사 소정우(연우진)의 전세 역전 로맨스를 그린다. 로맨틱 코미디인 만큼 무엇보다 두 배우의 호흡이 중요하다.

15일 목동 SBS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조여정은 상대역인 연우진에 대해 언급했다. 조여정은 "연우진과의 호흡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잘 맞아 놀랐다"며 "코믹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지 몰랐다. 장난을 치면 두 배로 불려서 돌려준다"고 말하며 웃었다. 이어 "서로가 건드리기만 해도 코믹 본능을 일깨우는 사이"라고 덧붙였다.

연우진은 "스스로를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가진 것이 자연스럽게 현장까지 전해진 것 같다"며 "촬영장에서 서로 얘기와 소통을 많이 한다"고 호흡의 비결을 밝혔다. 심형탁은 "연우진은 현장에서 자기를 놨다. 촬영장에는 연우진이 없고 소정우가 돌아다닌다"고 증언했다.

이 드라마는 이혼 변호사가 주인공이지만 법정 드라마보다 로맨틱 코미디에 더 가깝다. 연출을 맡은 박용순 PD는 "변호사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다. 드라마와 시트콤의 중간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우진도 "무게감을 잡기보다는 드라마에 색깔을 넣는다는 기분으로 밝고 편안하게 연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혼변호사는 연애중'은 작년 'SBS 극본 공모'에서 대상을 받은 김아정 작가의 작품으로 지난 12일 종영한 '내 마음 반짝반짝'의 후속작이다. 전작의 저조한 시청률에 대한 걱정에 연우진은 "시청률 부담이야 늘 조금씩 있다. 드라마 본연의 의도를 갖고 준비한 걸 잘 표현해 내는 것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SBS 새 주말극 '이혼변호사는 연애중'은 18일 오후 10시 첫 방송된다. /이유리기자 yuri@metroseoul.co.kr

SBS 새 주말극 '이혼변호사는 연애중'에서 호흡을 맞추는 배우들. (왼쪽부터) 심형탁, 연우진, 조여정 /SBS 제공

TV 하이라이트

◆ KBS1 세월호 1주기 특집 - 2부작 오후 6시, 오후 10시

세월호 특집 2부작 1부 '천 개의 바람 천 개의 기억' 2부 '함께 하겠습니다'가 방송된다. 1부에서는 김재원 김솔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세월호 참사 1년을 되돌아보며 공감과 치유의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2부는 전문가 패널과 일반 패널이 참사 이후 남겨진 과제들을 점검하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안전불감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모색한다. /정리=이유리기자 yuri@

◆ KBS2 마녀와 야수 오후 8시55분

괴조로 얼굴을 꽁꽁 싸매고 등장한 야수와 특수 분장을 한 미녀 3인이 설레는 데이트를 펼친다. JYJ의 박유천을 닮은 야수의 외모에 미녀들의 얼굴이 활짝 핀다. 재미로 시작한 타로 점이 소름 끼치도록 들어맞아 야수의 선택에 도움을 준다.

◆ tvN 뇌섹시대 - 문제적남자 오후 11시

요리연구가 앞에 일일 셰프가 된 창의적인 요리를 선보인다. 김지석은 특별한 레시피로 요리실력을 발휘하고, 이장원은 사실 서양식 브런치를 즐기는 뉴요커였냐고 밝힌다. 박석진은 주변의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요리를 만들어 낸다.

◆ EBS1 다문화 고부열전 오후 10시45분

돈 벌고 싶은 며느리와 베이비시터 어머니 편이 방송된다. 손주 셋을 도맡아서 돌보는 시어머니 손숙자(71) 여사와 공장 일에 부업까지 쉴 틈 없이 돈 벌기에 매진하는 며느리 레티빅장(28)이 주인공이다. 둘은 베트남 센터로 떠난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16일 (목)

지상파	KBS1	KBS2	MBC	SBS	EBS1	EBS2
18시	00 세월호 1주기 특집 /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 한국인의 사리25	27 KBS 금요일 24 / 30 2TV 저녁 생생정보	50 생방송 오늘 저녁	11 생방송 투데이	00 톡! 톡! 보니 하니 / 10 고고후 3 / 25 모여 실력자 중고 / 45 스페인드	01 지식 채널 / 25 Real Fun World / 30 월요 슈퍼헨스 영어 / 40 월요 슈퍼헨스 한국어 (재) / 50 Real Fun World #2 (재) / 56 시계마을 티키톡(한국어) (재)
19시	00 KBS 뉴스 7 / 30 한국인의 밥상	20 오늘부터 사랑해 (88)	15 빛나는 로맨스 (11회) / 55 MBC 뉴스데스크	20 달려라 장미 (73회)	00 토끼들 / 30 EBS 뉴스 / 50 어디 세계도전기	00 시계마을 티키톡(한국어) (재) / 25 내 친구 마샤(영어) 재 / 30 Real Fun World #3 (재) / 40 내 친구 마샤(한국어) 재 / 50 우리 동화대장
20시	25 유산한지 내사랑 (134회)	30 현재 돌을 국장 단체 / 55 마녀와 야수 (6회)	55 왕구랑 엄마 (115회)	00 특집 SBS 8 뉴스 /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0 다큐 오늘 / 50 세계 테마 기행	00 Real Fun World #4 (재) / 50 우리 동화대(한국어) / 20 스펠랜드 (재) / 30 공부의 왕도 (재)
21시	00 특집 KBS 뉴스 9		30 리얼스토리 눈		30 한국기행 / 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00 다큐 오늘 / 15 한중 스타 강사 특강
22시	00 세월호 1주기 특집	00 착하지 않은 여자들 (10회)	00 킬그린마 (10회)	00 냄새를 보는 소녀 (8회)	45 다문화 고부 열전	00 영화로 배우는 영어
23시	00 KBS 뉴스라인 / 40 KBS 특별 되고회원	10 특선 영화(대출차)	15 세상특별기획 기억의 조건 스캐블	15 특집다큐 침략의 시간 기억의 시간	35 글로벌 가족정상(가-한국에 산다 (7회)	
24시	00 KBS 뉴스라인 / 40 KBS 특집 되고회원		00 MBC 뉴스 24 / 30 계이저지그 다이하리 / 40 MBC 다큐 스페셜	15 나이트라인 / 45 특별해지는 꿈	15 원의학 뉴스 현황 / 10 EBS 스페이스 공감 (413회)	30 최고의 교사 (재)

케이블	JTBC	tvN	올리브TV	내셔널지오그래픽	채널CGV	스포츠
18시	30 최고 다시 (모조 신다) 45화 재	10 코미디 빅리그 (46회) 재			30 블라인드 2	◆ 프로야구 6:30 / KIA vs LG (SKY SPORTS, SPOTV2) / NC vs 롯데 (MBC SPORTS+) / 두산 vs KT (SPOTV, SPOTV) / 삼성 vs 한화 (KBS N SPORTS) / 넥센 vs SK (SBS SPORTS, 및 SPORTS)
19시	55 JTBC 뉴스룸	20 오늘 뭐 먹지?	00 오늘 뭐 먹지? (28회) / 30 오늘 뭐 먹지 (53회)	00 세계로 가는 역사의 현장 (4회)		
20시	55 JTBC 뉴스룸	40 라틀릭 치킨쇼 (40회) (재)	00 오늘 뭐 먹지? (54회) / 30 헬리버스 2015 (12회)	00 소립 개미 (3회)	40 주말 N 할 화 (5화)	
21시	40 닥터의 승부 (120회) (재)	40 너의 목소리가 보여 (8회)	30 원쑥 대원피트트 (8회)	00 사라 집에 도그 위스퍼러 (8회)		
22시			30 오늘 뭐 먹지? (55회)	00 세계로 가는 역사의 현장 (7회)	30 가이의 난새 트	
23시	00 헬프 (11회)	00 문제적 남자 (6회)	00 오늘 뭐 먹지? 22회 / 30 셰프&레이디의 구름다리 (1회)	00 강한 피스퀸 2부		
24시	20 냉장고를 부탁해 스페셜 (22회)	20 마녀사냥 (3회) 재	00 셰프&레이디의 구름다리 (7회) / 30 거스아 사람이 야 (8회)	00 헤 투 디 네트워 (6회)	00 도적들	

김태균 4번타자 존재감 찾았다

볼넷 13개 1위·출루율 3위… 3홈런으로 장타력까지 장착

김태균

한화 이글스 김태균(33)이 4번 타자의 무게감을 되찾았다.

김태균은 14일 삼성 라이온즈와 홈경기에서 1-3으로 뒤진 3회말 2사 1루 상황에서 삼성 우완 에이스 윤성환을 공략해 좌월 동점 투런포를 쏘아 올렸다. 한화는 이날 5-3의 짜릿한 역전승을 거뒀다.

최근 3년간 한화는 삼성을 상대로 절대적인 열세를 보였다. 지난해 상대전적이 4승 1무 11패였고, 2013년에는 4승 12패, 2012년에는 6승 13패였다.

하지만 이날 한화는 4번 타자 김태균의 짜릿한 홈런포로 삼성 공포증을 다소나마 덜어냈다.

경기 후 김성근(73) 한화 감독은 "4년 연속 1위를 하고, 우리와 상대전적에서 크게 앞섰던 삼성과 맞대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선수단 사기가 올라갈 것"이라며 "김태균은 타율 0.330에 30홈런이 가능한 선수"라고 칭찬했다.

김태균은 국내 최정상급 타자다. 하지만 김태균은 2008년 홈런왕에 오른 이후 거포 이미지와는 약간 거리감 있는 행보를 보였다. 2010년 일본 프로야구 지바롯데 마린스에서 21홈런을 기록하긴 했지만, 2012년 한화로 복귀한 후 3시즌 동안 단 한 번도 20홈런을 넘기지 못했다.

대신 타율과 출루율이 상승했다. 김태균은 2012년 타율 0.363으로 개인 최고 타율을 기록했고, 지난해 0.365로 타율을 더 끌어올렸다. 2012·2013·2014 김태균의 출루율은 무려 0.474·0.444·0.463이었다. 두 차례 타석에 서면 한 번은 출루한다는 의미다.

이제 김태균은 김성근 감독과 만나면서 '거포의 꿈'까지 다시 키워가고 있다. 김 감독은 최근에도 김태균의 타격 훈련을 직접 지휘하며 "타구를 멀리 보내는 법"을 연구했다.

10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에서 마수걸이 홈런을 기록한 김태균은 12일 롯데전에서 다시 홈런포를 쏘아 올렸고, 14일에도 홈런을 쳤다. 홈런 3개가 최근 4경기에서 나왔다.

김 감독은 김태균 특유의 출루 능력을 보존하면서도 장타력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15일 현재 김태균은 13개의 볼넷을 기록해 이 부문 공동 선두고, 5할에 가까운 출루율(0.481·3위)을 기록하고 있다. 장타율 역시 0.639로 이 부문 3위다. 홈런과 장타 수(6개)에서는 공동 10위에 올라 있다.

/이진은기자 mjk.mi@metroseoul.co.kr

선수층 얇은 KT, 선수 줄부상에 '울상'

필 어윈 이어 김사연·심재민·신명철 부상

올 시즌 프로야구에 뛰어든 '막내구단' KT 위즈가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울상이다.

KT는 지난 14일 수원 두산 베어스전에서 홈런 5방을 내준 끝에 2-18로 참패했다. 창단 후 최다 점수 차 패배보다 더 뼈아픈 것은 우익수 김사연, 중간계투 심재민, 1루수 신명철이 연이어 경기 도중 부상과 통증으로 교체됐다는 것이다. 외국인 투수 필 어윈은 전날 훈련 도중 오른 손목을 다쳤다.

가뜩이나 선수층이 얇은 KT에 이들의 공백은 커 보인다.

올해 1군에 합류한 KT는 그동안 선수 보강에 큰 공을 들이지 않았다. 지난겨울 마무리투수 김사율, 유격수 박기혁, 2루수 박경수로 FA 외부 영입 가능 인원인 세 명을 채웠다. 에이스 투수와 수준급 타자들을 모두 외면했다. 총액 기준으로 630억 여원이 쌓이진 지난 FA 시장에서 KT가 쓴 돈은 44억1000만원이다.

또 다른 팀보다 외국인 선수를 한 명 더 쓰는 혜택도 있지만 KT가 필 어윈(45만 달러), 앤디 시스코(32만 달러), 크리스 옥스프링(20만 달러) 등 세 선수에게 주는 평균 32만3000 달러는 10개 구단 중 가장 낮은 액수다.

두산 투수 변진수의 볼에 관략 손을 맞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KT 김사연

확실한 투자 없이 야구판에 뛰어든 KT는 신생구단 최다 개막 11연패를 기록하며 2승 12패에 머물러 있다.

반면 2013년 1군에 합류한 NC 다이노스는 2013시즌을 앞두고 거포 이호준과 멀티 내야수 이현곤을 총액 30억5000만원에 FA로 영입했다. 이듬해엔 이종욱에게 50억원, 손시헌에게 30억원을 투자했다. 이를 통해 NC는 지난해 1군 진입 2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KT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민준기자

추신수 레이저 송구 첫 보살

안타 추가… 강정호는 세 번째 결장

추신수(33·텍사스 레인저스·사진)가 총알 송구로 시즌 첫 보살을 기록하고 안타도 1개 추가했다.

추신수는 14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 주 알링턴의 글로브 라이프 파크에서 열린 메이저리그 LA 에인절스와의 홈경기에서 5번 타자 겸 우익수로 출전해 4타수 1안타를 쳤다. 시즌 타율은 0.167에서 0.182(22타수 4안타)로 약간 올랐다.

추신수는 1회 초 수비에서 전매특허인 레이저 송구를 선보였다. 우전 안타를 친 에인절스 톱타자 에릭 아이바가 1루를 돌아 2루로 내달리자 추신수는 공을 잡아 2루에 강하게 뿌렸다. 이미 2루에 들어온 유격수 엘비스 안드루스가 추신수의 송구를 노바운드로 잡아 아이바를 태그 아웃 처리했다.

추신수는 2회 첫 타석에서 2루 땅볼로 물러난 데 이어 3회 무사 1루에서 기술적인 타격으로 안타를 만들어냈다. 5회에는 1루 땅볼, 7회에는 삼진으로 물러났고 8회 초 수비 때 제이크 스몰린스키로 교체됐다.

텍사스는 선발 투수 닉 마르티네스의 7이닝 1실점 호투와 활발한 타격을 발판삼아 8-2로 완승하고 2연패에서 벗어났다.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는 디트로이트 타이거스와의 홈경기에서 벤치를 지키며 올 시즌 세 번째로 결장했다. 피츠버그는 디트로이트 선발투수 셰인 그린의 구위에 눌려 0-2로 패했다.

/김민준기자

레알, '마드리드 더비'서 또 복수 불발

레알 마드리드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15일 열린 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챔스리그 원정 1차전 0-0

레알 마드리드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마드리드 더비'가 무승부로 끝이 났다.

레알 마드리드는 15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비센테 칼데론에서 열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2014-2015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 원정경기에서 0-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올시즌 정규리그는 물론 수페르코파, 코파델레이(국왕컵)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한 번도 꺾지 못했다. 지난 2월 8일 열린 정규리그 경기에서는 0-4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유벤투스(이탈리아)는 8강 1차전 홈경기에서 후반 10분 아르투로 비달의 페널티킥 골로 AS모나코(프랑스)를 1-0으로 꺾었다.

/김민준기자

"미안해 잊지 않을게"

세월호 참사 1주기 전국 각지서 추모 물결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전국 각지에서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번 주를 추모 주간으로 정해 공무원들은 음주, 가무 등을 자제하고 있다. 일반 시민들도 광장에 모여 추모제를 여는 등 세월호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있다.

이날 오후 1시쯤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숨진 단원고 학생들을 추모하려는 발길이 이어졌다. 여러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헌화와 분향을 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직장인 김현동(45)씨는 "정부가 안전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건이 또 일어나기 마련"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인 안전대책을 내놓고 희생자들을 기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 중학교 교사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아직도 바닷속에 잠겨 있다.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자, 우리가 반드시 침몰시키겠다"고 분개했다.

이날 경기도 안산시내 곳곳에서도 희생자를 추모하는 현수막이 걸려 시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시는 단원구 초지동 합동분향소와 단원고교, 시청, 중앙역, 초지역 일대 등 5개 구간 30곳에 추모 현수막을 부착하고 관공서에는 추모 배너를 설치했다.

국가게양대에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고 적힌 노란리본을 달았으며 시청 민원실 홍보 전광판에는 추모 영상이 상영됐다. 버스, 택시 관용차량 등 2800여대는 노란리본을 달고 운행하고 있다.

강원도 춘천시 도청 청사 외벽에는 추모현수막이 걸렸으며 공무원들은 노란 리본을 달고 근무할 예정이다. 1년 전의 슬픔과 안타까움을 잊지 않겠다는 의미에서다.

전북 군산시 전북외고 학생들도 추모 행렬에 동참해 주위를 숙연케 하고 있다. 전교생 500여명은 지난 13일부터 오는 18일까지 6일간 추모 행사를 열고 있다.

최승원(18) 군은 "이번 추모식은 당시 친구들의 고통을 영원히 기억하기 위해 전교 학생들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홍률 목포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20명은 전남 진도군 팽목항에서 봉사 활동을 하고 유가족을 위로했다.

/서울원·최은영기자 hong@metroseoul.co.kr

2015 글로벌 생활명품전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5 글로벌 생활명품전'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檢, 수사 키맨 '성완종 심복' 5~6명 압축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정치권 금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성 전 회장의 '심복' 처럼 활동한 사건 관련자 5~6명을 추려내고 이들의 신변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검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특별수사팀은 이번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사전에 핵심 관련자를 5~6명 정도로 압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수사팀은 조만간 이들 소환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하고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핵심 관련자는 성 전 회장을 보좌한 경남기업 박모 상무와 이모 부장을 비롯해 비공식 개인 일정까지 챙겼던 측근 인사들이다.

특별수사팀은 성 전 회장이 사용했던 여러 대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내용, 문자메시지를 복원한 결과와 휴대전화 송수신 위치 정보를 분석해 이들을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추려냈다.

이들이 성 전 회장과 동행한 시간대와 빈도 등이 분석 기준이 됐다.

검찰이 신변조사에 착수한 윤모(52)씨는 성 전 회장이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2011년 당 대표 경선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넬 때 금품 전달을 맡겼다'고 언급했던 사람이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재무 담당 임원이던 경남기업 한모 부사장을 시켜 1억원을 마련한 뒤 윤씨에게 건넨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발신자 위치정보 분석을 통해 성 전 회장의 행적을 복원한 결과 그는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7일에도 윤씨와 접촉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선옥기자 hotbox@

남대문시장에서 즐기는 예술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 중앙통로에서 예술단체의 예술인들이 악기를 연주하며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 예술단체와 남대문시장상인회는 협약을 맺고 남대문시장 일대 곳곳에서 예술의 장을 펼치는 '남대문시장 예술장 프로젝트'를 오는 7월 말까지 열 예정이다. /연합뉴스

참사 사고책임자들, 어떤 처벌 받았나

세월호 실소유주 유 전 회장 측 처벌수위 약해 논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았지만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부의 형량 섬 없는 처음질로 논란이 되고 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고 이준석(69)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은 '퇴선명령' 여부를 두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선장은 지난 7일 광주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았다. 구조조치를 취하지 않아 살인 고의가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선장은 1심에서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승객·동료 승무원 살인 혐의가 적용된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7)씨, 기관장 박모(54)씨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나머지 선원 11명에겐 각각 징역 15~30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오는 28일 열릴 이 선장과 선원 15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의 쟁점은 '퇴선 명령' 실행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지며 참사의 원흉으로 지목받은 유 전 회장 일가와 측근 41명은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약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직접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절반 이상인 26명이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1명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유 전 회장의 아내와 처남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실형을 선고받은 10명의 평균 실형은 징역 2년 10개월에 불과했다.

7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장남 대균(44)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내달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호위무사로 그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은 박수경(35)씨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행 내용이 일상생활을 돕는 수동적 형태에 그쳤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재판 과정을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 등은 사건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있다.

이들은 "이 선장과 선원 등 사고 책임자들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다"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진실 규명을 촉구했다.

/번대환기자 [illegible]

法, 영담스님 동국대 이사장 대행 직무정지

동국대 이사회가 이사장 권한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직무대행을 주장하는 영담스님의 직무집행이 법원의 결정으로 정지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김용대 수석부장판사)는 일면스님과 영담스님이 서로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14일 일면스님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2월 23일 열린 동국대 이사회에서 이사장인 정련스님의 임기가 끝나 후임을 뽑아야 하는데도 정련스님이 신임 이사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자 일부 이사들이 일면스님을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또 이를 인정하지 않은 정련스님이 지난 9일 영담스님을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자 양측이 상대방의 직무집행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면스님이 영담스님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여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영담스님의 이사장 직무대행자로서의 직무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또 이사장실과 법인사무처장실, 법인사무처에 일면스님이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일면스님의 이사장 직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법인과 이사장 직인과 인감, 법인 통장도 일면스님에게 반환하라고 영담스님 측에 명했다.

재판부는 일면스님이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사회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등 절차상 적법했으며 이에 반해 정련스님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영담스님을 직무대행자로 지정해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영담스님이 일면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유선준기자 rsunjun@

한잔의 부드러움에
봄을 깨어난다
처음처럼
부드러운
17.5도
HAPPY WATER
부드러운 소주